이투데이

ECONOMY TODAY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etoday.co.kr

제2096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 '품질·상생경영' 결실 12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 "미세먼지 해결은 나무, 숲" 23

코스피(14일) 2155.68(+7.27P)
코스닥 755.42(+0.53P)
환율(달러당 원화) 1134.80(+2.2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793%(-0.002%P)

국민연금, 골드만삭스 英 런던 새 사옥 건물주로

유럽 부동산 큰손 '코리안 머니'

한국 투자자 상업용 부동산 투자
작년 9조3713억으로 사상 최대
5년간 6배…40%이상 영국 소재

"올여름 영국 런던의 새 사옥에 입주하는 골드만삭스 직원들은 건물주가 한국 연금펀드인 국민연금공단(NPS)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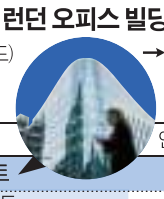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하며, 작년 여름 NPS가 완공도 안 된 런던의 고가 빌딩을 매입하는 등 최근 유럽 고급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투자자들의 유럽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73억 유로(약 9조3713억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투자 규모는 최근 5년간 여섯 배 가까이 커졌다. 그중 40% 이상을 영국이 차지했으며 대부분이 런던이었다. 한국 투자자들은 지난해 런던 부동산에 23억 파운드를 투자했다. 이는 홍콩의 25억 파운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NPS의 경우, 지난해 8월 골드만삭스의 새 유럽 본사가 입주할 '플럼트리코트빌딩'을 12억 파운드(약 1조8039억 원)에 인수했다. 이는 지난해 런던 사무용 빌딩 매매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 빌딩 10층은 골드만삭스와 25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 올여름 6000명이 들어온다.

작년 영국 런던 오피스 빌딩 주요 거래

(단위 : 파운드)



→ 국민연금이 12억 파운드에 매입한 런던 플럼트리코트 빌딩. ※출처 : FT

빌딩명	인수금액	국가
플럼트리코트	**12억**	**한국**
5브로드게이트	10억	홍콩
로프메이커플레이스	6억5000만	싱가포르
디아델피빌딩	5억5000만	스페인
베르데, 10브레스던플레이스	4억5500만	독일
15캐나다스퀘어	4억5500만	홍콩
20올드베일리	**3억4000만**	**한국**
60런던, 홀본비아덕트	3억2000만	노르웨이
리제트쿼터, 킹스크로스	3억	홍콩

NPS의 거래는 유럽 부동산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투자자들이 낮은 자금조달 비용과 높은 투자수익률, 환헤지 프리미엄 확보 등 다양한 매력에 유럽 고급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5년 법 개정으로 해외 투자가 쉬워져 유럽 고급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이 최소 4조 원 이상인 증권사는 새로운 자금조달 활동이 가능해졌다. NPS와 한국투자공사(KIC)는 물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해외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는 이유다.

NPS 외에 하나금융투자와 이지스자산운용은 6억7000만 유로에 프랑크푸르트의 트리아논타워를 매입했다. KB증권이 이끄는 컨소시엄은 3억4800만 달러에 런던의 '125셰프츠베리애비뉴'를 구입했다.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츠는 블랙스톤으로부터 런던 '20올드베일리'를 3억4000만 파운드에 매입했고, 이달 초에는 프랑스 파리 상업지구 라데팡스에 있는 마중가타워 인수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큰손들의 유럽 부동산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며 "올해는 파리가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희남 KIC 사장은 "우리는 점진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영국은 브렉시트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좀 더 조심스럽고 선택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아이돌의 추락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관련기사 5면 연합뉴스

과천 23%·용산 18% ↑…고가 아파트 '공시가 폭탄'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
12억~15억 아파트 18% 상승
내달 4일까지 소유주 의견 청취

정부가 공언했던 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 공시(4월 30일)에 앞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관련기사 3·16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국 기준 변동률은 지난해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며,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며,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등의 하락폭도 컸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3억 원 이하 공동주택(약 928.7만 호, 69.4%)은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 원(약 291.2만 호,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 호, 0.9%) 공동주택은 18.15% 각각 올랐다.

시세가 34억9000만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강남더샵포레스트 21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2000만 원에서 올해 23억7600만 원으로 23.8% 올랐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189㎡(시세 28억2000만 원)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9000만 원에서 올해는 28.9% 상승한 19억2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성헌 기자 carlove@

'홈플러스 리츠' 상장 철회

공모 규모 등 기대 못미쳐 자진해 IPO 접기로

국내 최초 조(兆) 단위 공모 리츠로 기대를 모았던 홈플러스 리츠(한국리테일홈플러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흥행 실패로 공모를 자진 철회했다. 적당한 시점에 기업공개(IPO)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13·14면

14일 홈플러스 리츠는 2월 28일 시작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코스피 상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최소 공모금액 1조5000억 원을 예상했지만 기관 청약이 기대를 밑돌면서 IPO 절차를 중단했다. 홈플러스 리츠의 공모 물량은 총 3억4547만8280주로, 이 중 80%를 국내외 기관투자가 몫으로 배정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공모 철회 소식의 원인으로 준비 부족을 지적한다.

IB업계 관계자는 "공모 희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상장 철회까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조 단위 규모의 한국물 공모 리츠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도 "한국시장에서는 조 단위 리츠 공모에 나선 것은 시기상조였다고 본다"며 " 리츠 시장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규모가 너무 컸던 것이 실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리츠 측은 이번 상장 철회를 완전한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긍정적인 외부 평가가 많았다"며 "향후 홈플러스 리츠에 편입되는 점포를 재구성하는 등 자산 조정을 통해 다시 상장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장 예비심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홈플러스 리츠가 상장 작업을 재개할 경우 상반기 중에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공모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 리츠는 상장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황을 추스린 후 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장 재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상장 철회는 결국 리테일 특화 리츠의 경우 업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며 "여기에 한국 대형 유통매장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까지 작용한 만큼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승차거부 없고 차량도 자동 배정

카카오 '택시앱' 20일 나온다

〈웨이고 블루〉

실시간 호출이용료 2000~1만원

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 중인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가 20일 서비스를 출시한다. 웨이고 블루의 기본 요금은 최저 2000원에서 최대 1만 원으로 책정된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웨이고 블루 기본요금을 이같이 확정하고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약관 적용은 20일부터다. 실시간 호출 이용 요금은 최소 2000원으로 책정됐으며 고객 수요의 집중도와 실시간 교통상황을 고려해 최대 1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다. 실시간 호출 이용 요금은 미터기 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카카오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을 변경했다.

웨이고 블루는 승객이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택시 애플리케이션이다.

택시기사는 승객을 태우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며 배차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승객 승차 거부와 골라 태우기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와 승객 골라 태우기를 막기 위해 지난달 '웨이고' 개발사인 타고솔루션즈에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부여했다. 타고솔루션즈는 택시 4500대 이상을 확보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를 통해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손정의 UBER 車공유 사업서 자존심 건 '머니게임' 미키타니 Lyft

손정의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 등 일본 IT업계를 대표하는 두 거인이 미국 자동차공유사업을 놓고 불꽃 튀는 지원사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소프트뱅크그룹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테크놀로지의 자율주행차량 사업부에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나 그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는 최종 단계에 있으며 기업공개(IPO)를 앞둔 우버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어필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량 사업부 투자 논의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IT 펀드 '비전펀드' 이외에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자동차업체가 최소 1곳 참가하고 있다. 소프트뱅크 컨소시엄은 이 사업부의 가치를 50억~100억 달러로 보고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달 투자 사실이 공개된다.

우버는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버는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2017년 약 7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지난해에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소프트뱅크

우버 자율주행 사업부에 10억 달러 추가 투자 논의

IPO 앞두고 큰 도움 될 듯

라쿠텐

지분 13% 보유한 리프트 이달 말 나스닥 상장 앞둬

보유지분 가치 29억 달러로

소프트뱅크는 이미 우버 지분 1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 손정의 회장이 10억 달러 이상을 또 지원하려는 셈이다. 투자 대상이 자율주행으로 국한됐으나 IPO를 앞둔 우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버는 5월이나 6월에 IPO를 실시할 계획이다. 월가 은행들에 따르면 우버 시가총액은 최대 1200억 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 자율주행 부문에서 투자를 받으면 우버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자사 가치와 성장 전망을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한편 우버의 최대 경쟁사인 미국 리프트는 이달 말이나 4월에 나스닥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우버를 제치고 세계 주요 차량공유업체 증시 상장 1호가 되는 셈이다.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

리프트의 가장 큰 원군은 바로 미키타니 회장이다. 라쿠텐은 2015년 리프트에 3억 달러를 투자했다. 당시 미키타니 회장은 "리프트에서 미래를 봤다"며 "리프트와 같은 기업은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라쿠텐의 리프트 지분율은 13%에 이른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억만장자 미키타니가 리프트 IPO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설명했다. 리프트는 기업가치가 현재 200억~25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다. 만일 리프트 증시 상장 후 시가총액이 현 기업가치 예상범위의 중간을 기록하면 라쿠텐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29억 달러를 넘게 된다.

손정의와 미키타니가 차량공유서비스를 통해 펼치는 대리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홍원표 "클라우드 토털 서비스 제공" 보안 시장 출사표

〈삼성SDS 대표〉

'못 들어오게·못 나가게·쓸모없게' 3대 보안 원칙 적용해 서비스 해결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데이터를 아우르는 엔드 투 엔드(End to End)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홍원표 삼성SDS 대표는 14일 서울 잠실 본사에서 열린 '클라우드 보안 미디어 데이'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한 최고 수준의 보안 서비스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대표는 자사 강점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안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와 보안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해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게 홍 대표의 계획이다.

홍 대표는 "최근 관계사나 대외 고객 경영진을 만나다 보면 클라우드에 굉장한 관심이 있다"며 "일반적 업무를 클라우드로 도입하는 기업은 많지만, 핵심 업무까지 클라우드를 활용한 기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전환율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성장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율은 2020년 83%에 이를 전망이다. 클라우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삼성SDS는 클라우드 보안의 특징과 위협을 소개하고,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한 '클라우드 보안 토털 서비스'를 발표했다.

홍원표 삼성SDS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잠실 삼성SDS타워에서 열린 '클라우드 보안 미디어 데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SDS는 △들어오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나가도 쓸모없게 등 3대 보안 원칙을 적용해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클라우드 보안관제 서비스로 외부 공격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한다. 이 서비스는 삼성SDS가 축적한 보안 위협정보(TI, Threat Intelligence)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사이버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분석하고 공격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또 기업의 주요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정보유출 방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사용자의 행위와 접속 기기, 위치 등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사용자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 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식이다.

외부 공격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 공격이다. 삼성SDS는 혹시라도 모를 자료 유출에 대비한 두 가지 기술을 선보였다.

데이터 복호화에 필요한 암호키를 삼성SDS 자체 알고리즘을 적용해 수학적으로 변환시켜 해커가 찾지 못하게 하는 화이트박스암호가 첫 번째 기술이다.

홍 대표는 "삼성 전체 관계사의 보안을 도맡아 하고 있는 만큼 클라우드와 보안 위협 방어 등 양면에서 핵심기술력을 가졌다"며 "두 분야를 융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노원 1만원 vs 서초 200만원… 보유세 증가액 200배差

집값 상승률 톱10 '세금 희비'

53% 오른 강남 일원동 10만원 증가
면적·공시가 높은 신반포8차 38%↑
임대사업 미등록땐 세부담 늘어날 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으로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률 상위 10개 아파트 단지의 세금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19년도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안) 변동률을 5.32%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5.02%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종안은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에 결정 및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과 연관돼 있다 보니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실거래가가 많이 뛴 단지의 경우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률 상위 10개 아파트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 및 보유세를 예상해 본 결과 적게는 1만 원대에서 많게는 200만 원대 보유세를 부담하는 등 증가폭이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률 53.5%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된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의 경우 보유세가 10만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서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59.94㎡)의 작년 공시가격은 4억8600만 원이다. 여기에 올해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15.7%를 적용하면 올해 예상 공시가격은 5억6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해 보면 지난해 106만7040원에서 117만3744원으로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곳은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8차로 추정됐다. 전용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시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단지다.

지난해 신반포8차(전용면적 141.83㎡)의 공시가격은 13억3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서초구 공동주택 변동률 16.02%를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15억5000만 원대로 예상할 수 있다. 보유세는 지난해 530만 원대에서 올해 734만 원대로 200만 원 가량(약 38%)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보유세가 가장 적게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는 곳은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률 10위를 기록한 노원구 주공5단지다.

지난해 주공5단지(전용면적 31.98㎡)의 공시가격은 2억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노원구의 공동주택 변동률 11.44%를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2억2800만 원대로 예상된다. 보유세는 지난해 35만7600원에서 올해 37만5480원으로 1만7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사람들의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부 고가주택,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은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공시가격 세금 시뮬레이션
(단위: 원)
※ 출처: 부동산114 등

순위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상승률	전용면적(㎡)	2018년 공시가	2018년 보유세	2019년 예상 공시가	2019년 예상 보유세	보유세 변동률
1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	53.5%	59.94	486,000,000	1,067,040	562,302,000	1,173,744	10.00%
2	성북구	보문동6가	보문파크뷰자이	50.8%	84.99	440,000,000	945,600	492,360,000	1,040,160	10.00%
3	강남구	수서동	삼익	50.4%	84.48	636,000,000	1,609,920	735,852,000	1,981,367	23.07%
4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4단지	49.2%	59.73	248,000,000	440,160	279,173,600	462,168	5.00%
5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삼성	47.8%	114.48	500,000,000	1,104,000	589,900,000	1,214,400	10.00%
6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리가	46.4%	84.847	490,000,000	1,077,600	577,857,000	1,185,360	10.00%
7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8차	46%	141.83	1,336,000,000	5,302,176	1,550,027,200	7,340,027	38.43%
8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1단지	45.8%	49.95	221,000,000	388,320	248,779,700	407,736	5.00%
9	동대문구	제기동	한신	45.5%	114.885	363,000,000	742,320	420,499,200	816,552	10.00%
10	노원구	상계동	주공5단지	45.2%	31.98	205,000,000	357,600	228,452,000	375,480	5.00%

전문가 진단

"집값하락·거래절벽 깊은 골 다주택자 증여만 부추길 것"

처분 대신 공동명의…富 대물림만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주택시장에 악재로 거래절벽이 더 깊은 골을 형성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번 인상폭이 급격한 수준인지 보수적인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14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더욱 위축돼 거래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서울과 경기 남부권인 과천, 성남 분당 지역들이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 및 주택 과다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 조정, 거래량 급감 등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져 당분간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며 "고가 1주택자는 증여를 통한 부부 공동명의로 세부담 분산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고가 주택 소유자들 위주로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인 명의로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부부간 비과세 한도인 6억 원에 맞춰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식이다. 이 경우 양쪽 모두 본인 지분이 9억 원 아래로 줄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 3구의 증여 거래 건수는 2017년 2175건에서 지난해 695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다만 이번 공시가격 인상폭이 급격히 오른 것인지를 두고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현실화율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결국 국지적이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가격 변동을 과세 기준에 어느 정도 속도에 담느냐가 문제인데 이번에 너무 급한 속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선 과세 기준에 대한 자산가액의 상승률을 5% 든 10%든 일정 상승률 이하로 규제하는 곳도 있다"며 "이번 인상으로 집주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번 공시가격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보수적이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보다 적게 올랐다고 평가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방 아파트값 하락이 전체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 같다"며 "서울의 경우 강남 지역이 예상보다 덜 올랐는데 최근 이 지역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공시가격에 선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공공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장 예측보다 보수적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다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타격이 큰 곳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곳들인데 매도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 거래 절벽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정부 목표 2.6~2.7%〉

힘 실리는 9조 추경… "성장률 유지하려면 재정 늘려야"

IMF, GDP의 0.5% 수준 권고… 홍남기 부총리 "긍정 검토"
전문가 "미세먼지와 별개 경기부양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
세수 부진이 걸림돌… 예산안 편성 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이 커지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대기 질이 악화하고 있는 데다 유례없는 재정 조기집행에도 경기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도 최근 방한해 국내총생산(GDP) 0.5% 수준(지난해 명목 GDP 기준 약 9조 원)의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언급했듯,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 중"이라며 "당장은 미세먼지 대책이 나와야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와 규모를 얼마로 할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을 대표로 하는 IMF 협의단은 12일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추경 규모는 우리가 바라건대 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으려고 한다"며 "미세먼지 추경이 도래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돼 미세먼지 추경의 요건상 장애물도 없어진 상태다.

다만 올해 어두운 세수 전망이 추경의 걸림돌이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정체로 지난해와 같은 초과 세수(13조 7000억 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월에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5000억 원(1.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세수 진도율은 12.6%로 전년에 비해 1.1%포인트(P) 하락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또 추경의 주목적이 경기부양이 아닌 미세먼지 사태 해결인 만큼, 목적예비비(1조8000억 원)와 일반예비비(1조2000억 원)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경 대신 예비비가 활용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대책과 별개로 경기부양 목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IMF의 권고를 반대로 보면,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이 2.3~2.4%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론 추경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나겠지만, 그보단 경기 하드 랜딩(경착륙, hard landing)이 더 부정적인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석탄·경유차 없애라" 환경정의 회원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미세먼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탈석탄, 탈경유차'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10월부터 대전~세종 구간 허용

〈87.8㎞〉

민간참여형 '첨단도로' 조성
데이터 개방, 신규 서비스 검증
공모 탈락 업체도 데이터 활용

올 10월부터 고속도로(당진~대전선 서세종나들목(이하 IC)~북대전·유성IC 구간)에서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까지 대전~세종 첨단도로(C-ITS) 시범사업 구간에 민간참여형 자율주행협력 시험공간(리빙랩)을 조성하고 10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차량 센서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통신으로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실시간 협력(통신)이 가능한 인프라를 대전~세종 87.8㎞ 구간에 구축하고 교통안전 서비스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검증해왔다.

특히 이 구간에는고속도로인 대전~당진선 일부 구간(서세종IC~북대전·유성IC, 18.5㎞)이 포함돼 있어 첫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리빙랩 구축사업은 그간 시범사업에 사용된 대전~세종 첨단도로(도로변 검지기 등) 수집 데이터를 민간(업체)에 개방하고 업계 수요를 받아 시험주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참여기관이 개발 기술의 현장시험 목적으로 시험공간을 구축·운영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기존 공간에 제삼자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은 처음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실제 도로 기반의 시험공간을 통해 종전의 개발기술 또는 발굴한 신규 서비스를 검증하게 된다.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도 구축된 인프라 수집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운영 및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가계대출 억제해도… '풍선효과'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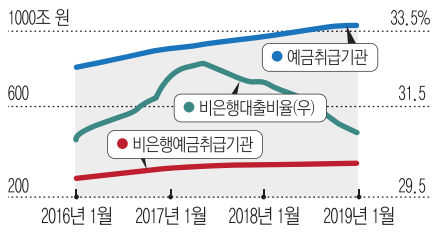
2금융권 비중 35개월 만에 최저
"하반기 DSR 적용으로 더 줄 것"

가계대출 중 제2금융권 비중이 2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대출은 한 달 만에 1조2000억 원 넘게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감독당국의 규제가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2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 비중은 더 축소될 것으로 봤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147억 원 감소한 1033조2027억 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15년 6월(-8조 2030억 원)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융기관 가계대출·비은행예금 취급기관 비율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6581억 원 증가한 713조7430억 원을 보였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1조2729억 원 감소한 319조4597억 원을 나타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1조2344억 원 급감한 70조2020억 원을 기록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감소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이에 따라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비은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30.92%로 떨어졌다. 이는 2016년 2월(30.89%) 이후 최저치다. 이 비중은 2017년 5월 32.66%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1년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때문이란 분석이다. 서유정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집단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대출이 제한된 가운데 기존 대출의 만기도래가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비은행 쪽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관련 대출 규모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구글, 일방적 콘텐츠 삭제·사본 저장 안돼"

공정위, 유튜브 저작권 침해 '제동'

페북·네이버·카카오도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약관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이용자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유튜브에 콘텐츠를 제공한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삭제하면 구글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동영상 중계 플랫폼 등)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에 메스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가 된 구글의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허락받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하는 조항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하면 사전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계정을 종료하고 있으나 앞으론 이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해당 조항은 시정권고 수준이지만 구글이 60일 이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까지 할 수 있다.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자진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첨단 융합 혁신의료기술, 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별도의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종전의 신의료기술 평가기간도 30일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 및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에 대해 종전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이 도입된다. 적용 대상은 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로 암 등 중증질환을 치료하거나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출판된 문헌을 근거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던 종전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현장에 사용되기 전 기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의료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체시켜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문헌 중심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잠재성 평가 방법을 개발해 별도 평가트랙에 적용했다.

별도 평가트랙을 활용하면 기존 평가 체계에서 유효성을 평가할 문헌이 부족해 탈락했던 의료기술들도 높은 잠재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면 조기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내년부터 특허행정 AI 활용

내년부터 특허 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된다. 대부분의 특허 검색에 AI가 활용되며 5년 뒤엔 AI 음성 특허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특허넷은 산업재산권 출원과 심사, 심판, 등록, 공보 발간 등 특허 행정 업무 전반을 전산화한 종합정보시스템이다.

특허청은 AI 기술 도입과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시스템 성능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심사관이 문자는 물론 이미지, 도면, 등을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집주인, 라돈 측정결과 세입자에 반드시 알려야”

송옥주 민주당 의원 ‘공공주택법 개정안’ 내주 발의
임대차 계약 시 설명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라돈 등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1급 발암 물질인 라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공공주택부터 정확한 정보를 알려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주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이 승인된 신축 건물에 한해 최초 입주 시기에만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대기업 건설사가 연이어 시공한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입주민들이 자제 교체 등을 요구하고 건설사는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지만 이를 해소할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송 의원은 14일 “외국은 주택거래 체결 전 라돈 농도와 같은 실내 공기질 측정값을 주택 판매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 공기 질 측정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민법 적용을 받는 현행 주택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공공주택부터라도 관련 제도를 개선해 민간주택으로 점차 확대를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송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에 라돈이란 공포가 스며들어 그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시작으로 주거지에서 라돈 관련 불안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김부겸 “버닝썬 의혹 명확히 밝혀 국민에 알릴 것”

박상기 “중앙지검으로 이첩”
경찰청장 “경찰 명운 걸겠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모든 의혹을 내·수사해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그(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밑바닥에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하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갑룡〈사진〉 경찰청장은 “범죄와 불법을 뿌리뽑아야 할 경찰에 대해 유착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이 크게 걱정하는 것에 대해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버닝썬과 관련한 마약, 성폭력, 불법촬영과 영상 유포, 경찰과 유착 등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서울경찰청장이 이끄는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하고, 126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서 여야 의원들은 경찰이 이번 사태 확산의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경찰이 범죄집단과 밀착해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폭행까지 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폭행하는 몽둥이가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강남지역 일대 클럽이 폭행, 마약 유통과 투여, 성접대, 음란물 유포 등 불법 천지가 됐다”며 “만약 버닝썬 폭행 사건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닝썬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로 111일째”라며 “경찰이 계속 뒷북치고 있다는 지적이 따갑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경찰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김부겸(왼쪽 두 번째부터) 행안부 장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민감사 청구인 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 자치 요소 강화를 통한 주민 참여 제도 실질화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등이 주요 골자다.

조현정 기자 jhj@

文 대통령 지지율 45%… 취임 후 최저

부정평가 처음으로 50% 넘어
비핵화정책 불신·보수층 집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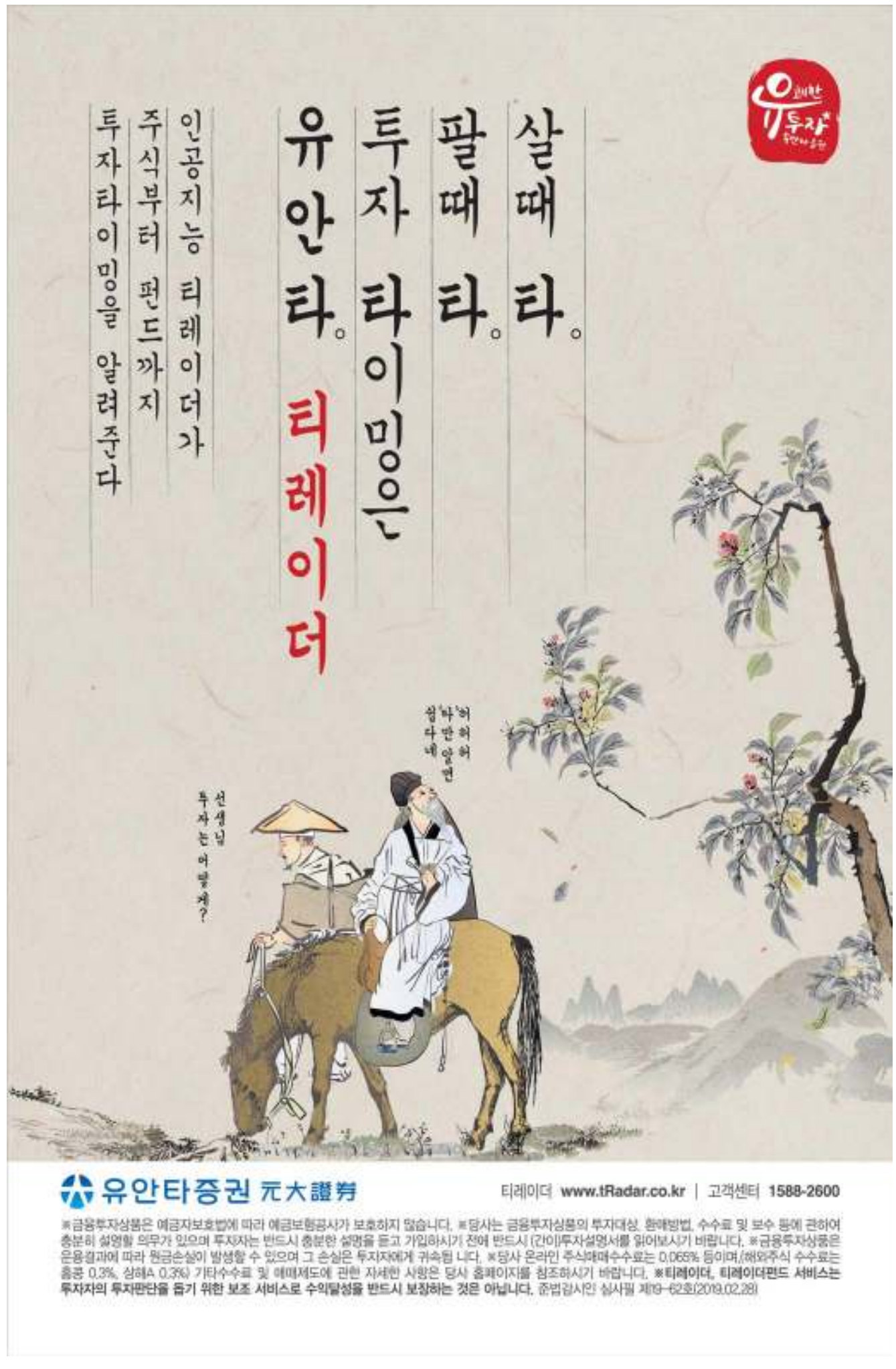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기며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11~13일 전국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5%포인트(P))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3%P 하락한 45.0%였다. 부정 평가는 3.3%P 오른 50.1%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5.1%P)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최근 3주간 내리 하락했다. 경기·인천과 서울, 30대와 50대, 가정주부와 노동직, 사무직,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지지층,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하고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감 상승이 지지층 이탈의 원심력”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와 같은 37.2%, 한국당은 1.9%P 오른 32.3%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4.9%P로 좁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유충현 기자 lamuziq@



페북, 시스템 오류 이어 '정보 거래' 혐의… 美 검찰 수사

'악재의 늪'에 빠진 저커버그

페이스북을 둘러싼 끊임없는 악재에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13일(현지시간) 산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페이스북 일부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으며, 10시간 이상 계속됐다. 이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페이스북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광고주들에게 환불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밝혔다.

설상가상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연방 검찰이 여러 대기업과의 '정보 거래' 혐의로 페이스북을 형사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뉴욕 대배심은 유명 스마트폰 제조사 2곳의 관계자를 소환해 페이스북과의 '정보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뉴욕 대배심은 뉴욕 동부 지방검찰의 감독하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업체 2곳은 페이스북과 제휴해 페이스북 사용자 수억 명의 개인정보 접근권을 얻은 것으로 지목된 곳이다. 페이스북은 2010년부터 150개사에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등 미국의 간판 IT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페이스북은 지난해 미국인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손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연방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불상사는 얼마 전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발표한 향후 페이스북의 비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저커버그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생활에 초점을 둔 소셜네트워킹의 비전'이라는 글을 통해 자사 주력제품들이 지향해갈 변화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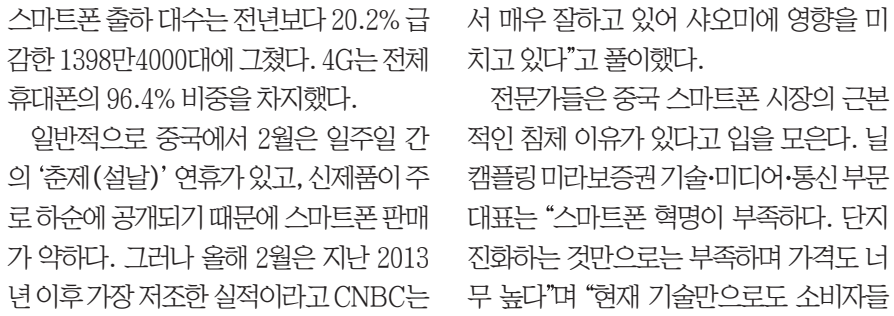
그러나 예기치못한 악재들로 인해 페이스북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게 됐다는 평가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 유통창구'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제시민연대네트워크 아바즈는 "가짜뉴스가 페이스북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작년말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란 조끼 시위 때 피투성이 얼굴의 여성 사진이 페이스북에서 13만6000번 이상 공유됐는데, 사실 이 사진은 201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찍힌 사진이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선 때 "러시아가 운영한 470여개의 가짜 계정에 약 5만 달러의 광고 2200개가 실렸다"고 인정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IT 업체들과 가입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보도에 대해 "연방 정부와 사법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보털리서치그룹의 브라이언 위저 애널리스트는 "페이스북은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는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며 "만일 저커버그의 책임과 관련 있다면 그는 페이스북 CEO로 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투자정보회사 CFRA의 스콧 케슬러 애널리스트도 "정보 유출, 가짜뉴스, 해킹 등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시장은 페이스북의 경영 및 관리에 대해 우려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정 기자 0jung2@



中 스마트폰 판매량 6년 만에 최저 접지 못한 '샤오미·애플' 성장 접혔다

"혁신 없이 가격 높다" 소비자 외면
삼성·화웨이 '폴더블폰'으로 새 길

세계 최대인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은 14일(현지시간) 2월 중국 내 휴대폰 출하가 전년 동월 대비 19.9% 줄어든 1451만1000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4G 스마트폰 출하 대수는 전년보다 20.2% 급감한 1398만4000대에 그쳤다. 4G는 전체 휴대폰의 96.4%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2월은 일주일 간의 '춘제(설날)' 연휴가 있고, 신제품이 주로 하순에 공개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가 약하다. 그러나 올해 2월은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이라고 CNBC는 지적했다. 춘제 변수를 제거한 1~2월 휴대폰 출하도 전년보다 15.1% 감소한 4855만9000대를 나타냈다.

리서치 업체 IDC의 왕시 선임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포화 상태에 다다른 스마트폰 시장, 소매업체의 과도한 재고 등이 2월 출하 부진의 주원인"이라며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올해 좋은 출발을 하고자 1월에 수요를 훨씬 넘어 제품을 공급한 것이 2월 출하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CNBC방송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에 본토 업체인 샤오미와 미국 애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닐 샤 리서치 디렉터는 "화웨이와 비보, 오포가 계속해서 시장을 장악하면서 애플과 샤오미가 가장 큰 패자가 될 것"이라며 "중국시장은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했고, 성장 대부분이 중저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아너 브랜드와 노바 시리즈, 오포의 A시리즈가 이 부문에서 매우 잘하고 있어 샤오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근본적인 침체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닐 캠플링 미라보증권 기술·미디어·통신 부문 대표는 "스마트폰 혁명이 부족하다. 단지 진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격도 너무 높다"며 "현재 기술만으로도 소비자들이 만족해 교체주기도 길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다음 혁신을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분명한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최근 발표한 폴더블폰은 당분간 틈새시장용으로 남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에서 애플의 고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마감한 2019 회계연도 1분기에 애플의 중화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가까이 급감했다. 중국 주요 소매업체들은 1월 애플 아이폰 가격을 인하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왜 나만"… '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 석방 불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가운데)이 1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을 떠나며 흐느끼고 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흐엉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살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흐엉은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11일 석방되면서 흐엉도 기소가 취하돼 석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샤알람/EPA연합뉴스

'스타벅스' 中서 총알배달 서비스 토종 라이벌 '루이싱' 텃밭 뚫을까

세계 최대 커피 체인망 스타벅스가 중국 시장에서 '총알' 배달 서비스에 나섰다. 신화/뉴시스

세계 최대 커피전문점 체인 스타벅스가 중국 시장에서 '총알' 배달 서비스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장악해가는 토종 신생기업 '루이싱 커피'에 맞선 전략이라고 WSJ는 전했다.

스타벅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지 20년이 됐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부유층을 타깃으로 삼았다. 우아한 매장에 찾아온 고객들이 오래 머물게 한다는 전략을 고수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방침을 깨고 배달 서비스를 추가했다. 중국 토종 신생업체 루이싱이 매서운 기세로 중국 커피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창업한 루이싱은 처음부터 배달 서비스로 커피 시장을 공략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매장을 열고 배달 또는 픽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베이징에서 루이싱의 매장 수는 스타벅스를 넘어섰다.

자극을 받은 스타벅스는 2018년 8월 알리바바그룹 산하 음식 배달 플랫폼인 '어러머'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배달 서비스에 나섰다. 스타벅스는 음료가 쏟아지거나 식는 것을 막기 위해 2년에 걸쳐 특별한 뚜껑과 포장재를 개발했다.

스타벅스와 루이싱은 현재 중국 주요 도시에서 30분 이내 '신속' 배달을 내걸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3700개 매장을 운영 중인 스타벅스는 올해 600개 매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루이싱 역시 올해 2500개 매장을 더 늘려 총 4500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케빈 존슨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시장 변화와 고객 스타일에 맞추는 것은 힘든 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은 커피 산업이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 적극적으로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자문기업 샌포드번스타인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1인당 약 5~6잔에 불과하다. 300잔이 넘는 미국에 비하면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중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달 '전투'는 외국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달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WSJ는 평가했다.

김영정 기자 0jung2@

힘 받는 '브렉시트 연기론'… 낙관은 금물

EU 거부하면 '노 딜' 나락

영국 하원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브렉시트 연기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연기가 오히려 영국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밤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반대를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4일 노 딜 브렉시트의 대안인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표결하게 된다.

대다수 전문가는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언급됐던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사라지자 파운드화는 이날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닛케이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금융업계와 기업들이 우려했던 경제 혼란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낙관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우선, EU가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에 순순히 응할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브렉시트가 연기되려면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 27개국이 만장일치로 이를 허락해야 한다. 21~22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 승인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들의 최대 관심사는 브렉시트가 아니라 오는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다.

이번 선거는 유럽 회의론을 제창하는 극우세력이 유럽 통합의 중요성을 호소해온 온건파에 도전하는 구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닛케이는 "현재 EU를 떠나려는 영국은 온건파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EU 온건파가 브렉시트 연기에 순순히 호응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만일 영국과 EU가 연기 이유와 기간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3월 말 노 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철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닛케이는 "테리사 메이 총리의 사임으로 국민투표 혹은 총선거가 현실화하면 브렉시트가 철회될 수 있다는 관측이 영국 정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다이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강력한 흡입력도 마음에 쏙 들어요.
미국 다이슨 홈페이지 | 2019년, 01월*

★★★★★
"돈 낸 만큼 값을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다이슨 싸이클론 V10을 보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미국 다이슨 홈페이지 | 2018년, 08월*

다이슨의 높은 품질과 편리함에 대적할 수 있는 제품은 없다.
Wired, 미국 | 2018년, 08월
WIRED RECOMMENDS 2018

★★★★★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믿을 수 있는 무선 청소기를 찾고 있다면 다이슨을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호주 다이슨 홈페이지 | 2018년, 03월*

★★★★★
무선 청소기라 혹시라도 충전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매일 사용하는데도 전혀 문제없어요.
미국 다이슨 홈페이지 | 2019년, 02월*

★★★★★
품질이 환상적입니다.
미국 다이슨 홈페이지 | 2018년, 03월*

★★★★★
다이슨 청소기로 청소하니 매일 청소하는 게 쉬워졌어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요!
미국 다이슨 홈페이지 | 2018년, 12월*

배터리 수명이 1시간가량으로 늘어나 제품의 성능과 흡입력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Want, 베네룩스 | 2018년, 10월
W

다이슨 싸이클론 V10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무선 청소기이지만 기존의 유선 청소기에 비해 결코 흡입력이 떨어지지 않으며, 특히 마룻바닥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쉽게 켜고 끄는 기능이 있어 더 민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흡입력에 있어서는 카펫에 끈질기게 붙어있던 마지막 찌꺼기까지도 다 빨아들일 정도이다.
Tech radar, 영국 | 2018년, 11월
tech radar RECOMMENDED

★★★★★
뛰어난 품질과 엔지니어링
영국 다이슨 홈페이지 | 2019년, 01월*

★★★★★
다이슨 진공청소기는 사랑입니다.
캐나다 다이슨 홈페이지 | 2018년, 11월*

★★★★★
강력하고, 가볍고, 편리하고, 사용하기도 쉽고, 빠르게 충전되면서 오래가고, 먼지통도 쉽게 비울 수 있어 좋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예요!
미국 다이슨 홈페이지 | 2018년, 06월*

★★★★★
제가 써본 진공청소기 중 최고입니다.
미국 다이슨 홈페이지 | 2018년, 12월*

★★★★★
제가 사용해본 청소기 중 최고예요!! 흡입력도 강하고 사용하기 정말 편해요.
미국 다이슨 홈페이지 | 2018년, 09월*

다이슨은 언제나 최고의 무선 청소기를 만든다.
GQ, 미국 | 2018년, 08월
GQ Best Stuff 2018

★★★★★
엔지니어링 기술의 강함에 우아함까지 엿볼 수 있는 청소기입니다.
영국 다이슨 홈페이지 | 2019년, 02월*

다른 모든 다이슨 제품들 처럼, 싸이클론 V10 앱솔루트는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에 훌륭한 내구성을 가진 청소기다.
Buzz.ie, 아일랜드 | 2019년, 02월
buzz.ie

★★★★★
엔지니어들이 고심해서 만든 제품답게 제대로 만들었네요.
미국 다이슨 홈페이지 | 2018년, 11월*

★★★★★
무게도 가볍고 튼튼해서 너무 좋아요.
미국 다이슨 홈페이지 | 2019년, 02월*

*위 소비자 리뷰는 각국 다이슨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의 의견임

dyson 더 자세한 내용은 kr.dyson.com/bette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ioneering motor technology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ABS 발행 성공해도… 자본 압박 리스크 산적

'자충수' 된 FI 새 협상안

교보생명, 배당성향 15.4%
他보험사와 최대 3배 이상 차이
'투자자 모집' 배당 확대 불가피

당국 "지배구조 변화 등 예의주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새 협상안으로 제시한 자산유동화 증권(ABS) 발행 제안과 관련해 '자충수'를 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조화도 어려울 뿐더러, 발행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자와 배당 부담이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변화, 자본 건전성 악화 등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 따르면 최근 신 회장은 FI 연합에 △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 △FI 지분 제3자 매각 △기업공개(IPO) 후 차익 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1순위 카드는 FI지분 29.34%를 기초자산으로 한 ABS 발행이다. 신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FI가 들고 있는 주식 600만 주를 이전받은 뒤, ABS를 발행해 풋옵션 대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 회장은 경영권을 지킬 수 있고 FI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ABS를 발행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찍는 건 더 흔치 않은 일"이라며 "가격변동이 큰 주식으로는 구조화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BS는 원리금 지급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자담보책임, 신용공여약정 등의 신용 보강을 한다"며 "만약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신 회장이 총수익스와프(TRS)에 나선다면 나중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고 ABS 발행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투자자들에게 줄 배당금이 문제다. 상장 생명보험사의 최근 2년(2016~2017년) 평균 배당성향은 38.5%이다. 삼성생명이 39.6%이고 △한화생명 23.5% △오렌지라이프 63.6% △동양생명 31.1% △미래에셋생명 34.7% 등이다. 교보생명(15.4%)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더구나 삼성생명은 2021년까지 배당성향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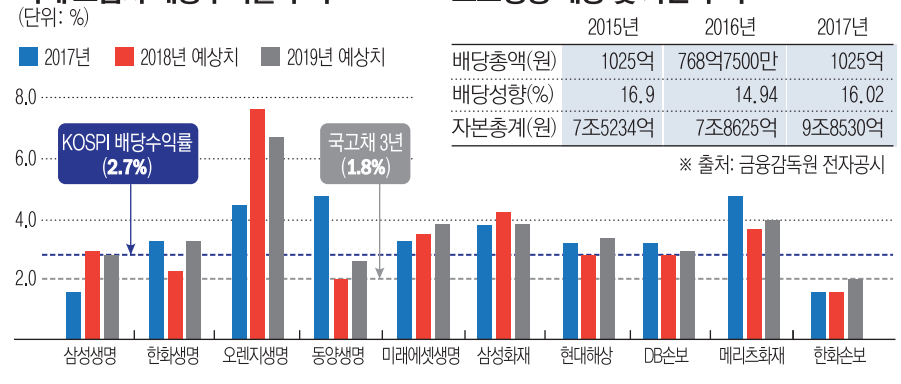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려면 배당 매력을 어필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새 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올해 생보업계의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배당 여력을 늘리면 자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기준이 완화되고 있어 배당을 줄 재무적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상 방안이 나오지 않아 뭐라 말을 하긴 어렵다"면서도 "지배구조 변화를 포함해 자본건전성 악화, 고객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정용욱 기자 dragon@

국내 보험사 배당수익률 추이

(단위: %)



교보생명 배당 및 자본 추이

	2015년	2016년	2017년
배당총액(원)	1025억	768억7500만	1025억
배당성향(%)	16.9	14.94	16.02
자본총계(원)	7조5234억	7조8625억	9조8530억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케이뱅크, 대출 중단 우려… KT 대주주 심사 촉각

부적격 땐 유증 불발 등 악화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최대 변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명운(命運)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금융당국으로 넘어갔다. 산업자본인 KT가 지분 확대를 통해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가는 안이 불발될 경우 다시 '대출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부터 KT가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에 들어갔다. 현재 케이뱅크의 2대 주주(10%)인 KT는 이번 심사를 통해 1대 주주로 올라설 계획이다. 당국 심사는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보가 시급하다. 앞서 유상증자가 막히면서 대출상품 판매가 중단된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는 1월 말 59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현재 자본금(4775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염두에 둔 안이다. 증자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KT는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면 새로 개정된 은행법이 허용하는 34%까지 지분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증자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섬과 동시에 이뤄진다. 결국, 유상증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에 달린 것이다.

앞으로 출범할 새로운 인터넷은행과의 경쟁까지 고려하면 이번 결과에 따라 케이뱅크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 케이뱅크가 이번 적격성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문제는 KT의 전력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벌금형 이상 처벌이 없어야 한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안이 최대 고비다. 이를 덮고 통과시킬 경우 향후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에 부담이다. KT 입장에선 이 같은 변수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냥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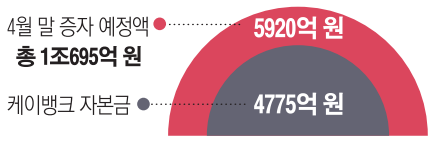
케이뱅크는 4월 말 추가 유상증자를 예고했다. 약 한 달 반가량의 시간이 남았다.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케이뱅크 주주현황

우리은행	13.79%	NH투자증권	10%
KT	10%*	IMM PE	9.99%
		한화생명보험	9.41%

*대주주 적격성 통과시 34%로 올라갈 예정



윤석헌 "금융사 이사회와 긴밀히 소통"

금감원 출입기자단 간담회
"내부통제 등 경영 간섭 안해"

윤석헌〈사진〉금융감독원장이 "감독기구로서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저희들의 시각을 금융회사 이사회와 공유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업무계획안은 취임 2년 차를 맞아 '윤석헌 표' 감독 색깔이 본격적으로 입혀진 것으로 감독·검사 기능이 강화됐다.

핵심은 이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CEO 승계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지배구조는 금융회사 건전 경영을 위해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다"며 "해외 금융 선진국의 경우 훨씬 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국가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CEO간담회와 이사회 의장과의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윤 원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구조를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데 그건 경영에 관한 선을 넘어가겠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금감원이 하나금융 이사회와 면담한 것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법률 리스크 언급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것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삼성전자 임원들 '블록체인 열공' 왜?

갤S10에 '블록체인 지갑' 탑재… 암호화폐 계좌관리·송금
별도 하드웨어 없이도 본인 확인 뒤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
"스마트폰 제조업체 도입 늘면 블록체인 대중화 앞당길 것"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임원 A 씨는 최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A부터 Z까지 공부 중이다. 몇 년 전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을 당시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뒤늦게 블록체인 학습 삼매경에 빠졌다. 이달 초 출시된 '갤럭시S10'에 블록체인 지갑 기능이 장착되면서 관련 기술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게 이유다.

A 씨는 "주변에서 갤럭시S10에 장착된 블록체인 지갑이 대체 뭐냐고 묻는 이가 많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사이에 최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 시리즈 10주년 기념 제품인 갤럭시S10에 블록체인 지갑〈사진〉을 장착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관련 지식 습득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는 IM부문 임원은 물론이고, 반도체와 가전 사업부 임원들도 블록체인 배우기에 동참하고 있다. 일부 부서는 블록체인 관련 사내 전문인력을 초청해 따로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로도 불리는 암호화폐는 2017년 하반기 비트코인 열풍이 불며 본격적으로 국내에 알려졌다. 지난해 가격이 급등락하며 사행성 조장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적극 나서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관심은 시들해졌다. 관가에서는 비트코인 투자금지령이 내려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국내 시장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 세계 1위 삼성전자가 관련 기능을 플래그십 제품에 장착하면서부터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분산형 기술을 용어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은 이더리움, ERC20 토큰 등을 관리하는 암호화폐 계좌 관리 서비스와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갤럭시 S10 사용자는 블록체인 게임이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 하드웨어가 없어도 바로 본인 확인 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는 현재 코인덕과 엔진 지갑, 크립토키티, 코스미가 제휴 앱으로 등록됐다.

삼성전자의 암호화폐 결제 지원은 오프라인 영역에서 확장이 힘들었던 결제 분야에 다양한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페이와 결합할 경우 그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블록체인 기능을 장착한다면 블록체인 대중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블록체인 월렛' 앱을 기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삼성 내부 앱 스토어인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갤럭시 단말기로 '삼성 블록체인 월렛'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삼성전자의 이런 행보가 암호화폐 활성화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외 송금 제재가 대표적 사례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전자, 세계 최대 용량 '12GB 모바일 D램' 양산

기존보다 용량 1.5배 높여

폴더블폰 등 화면이 2배 이상 넓어진 초고해상도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앱의 작동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대용량 모바일 D램 시대가 열렸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용량인 '12GB(기가바이트) LPDDR4X(Low Power Double Data Rate 4X·사진) 모바일 D램'을 양산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 D램은 모바일 기기의 두뇌인 AP(Application Processor)의 연산을 돕는 역할을 한다.

'12GB LPDDR4X 모바일 D램'은 2세대 10나노급(1y) 16기가비트(Gb) 칩을 6개 탑재한 제품이다. 기존 '8GB 모바일 D램'보다 용량을 1.5배 높여 역대 최대 용량을 구현했다. 이로써 일반적 울트라 슬림 노트북에 탑재된 8GB D램 모듈보다 더 높은 용량의 D램 패키지를 모바일 기기에 적용하게 됐다.

모바일 업체들은 차세대 스마트폰에 5개 이상의 카메라 모듈, 대형·멀티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프로세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 같은 고사양 스마트폰에 더 높은 용량의 D램을 탑재하면 시스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또 12GB 대용량을 한 개의 패키지로 구현함으로써 소비전력 효율을 높이고 배터리 탑재 면적도 키울 수 있다.

'12GB LPDDR4X 모바일 D램'은 현재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가장 빠른 속도인 초당 34.1기가바이트(GB)의 속도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으며, 패키지 두께도 1.1㎜에 불과해 모바일 기기를 더 슬림하게 설계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12GB 모바일 D램 양산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8GB 이상 고용량 모바일 D램 라인업의 공급 물량을 3배 이상 확대해 글로벌 IT 고객들의 프리미엄 메모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보잉 737 맥스 8' 국내 항공사도 일제히 운항 보류

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비행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보잉 737맥스 기종의 운항을 일제히 보류했다.

제주항공은 14일 "지난해 11월 보잉사가 제작한 737 맥스8 50대(확정 40대·옵션 10대) 구매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2020년 해당 항공기 리스 형태 도입을 검토했었다"며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해당 항공기 이슈와 관련해 항공기 도입의 전제는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측은 "제주항공이 정한 최고 경영 목표는 안전 운항체계 고도화"라며 "따라서 항공기 도입 계획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등도 잇단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보잉사의 신형기 'B737 맥스' 운항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대한항공(6대), 이스타항공(4대), 티웨이항공(4대) 등 국내 항공사 3곳은 올해 보잉 737 맥스 14대 도입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보잉737맥스8 항공기 안전이 완벽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운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보잉737맥스8 기종을 5월 첫 도입을 시작해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보잉 737맥스8이 투입될 예정인 노선은 타 기종으로 대체해 운항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연내 4대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맥스 기종의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안전확보 전까지는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국내외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예의주시하면서 항공기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운항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안경무 기자 noglasses@

LGD, 中 최대 가전 박람회 'AWE2019' 참가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상하이에서 14일 개막해 17일까지 열리는 중국 최대 가전 박람회 'AWE 2019'에 처음으로 참가해 OLED TV의 우수성을 알린다. 사진은 별도 스피커 없이 화면에서 직접 소리가 나는 LGD디스플레이 88인치 8K 크리스탈 사운드 OLED를 관람객들이 체험하는 모습.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 직영·협력업체 안전관리 일원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전문가 자문단' 구성… 외부기관 통한 종합 안전진단

현대제철이 직영·협력·외주업체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충남 당진공장 외주업체 직원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14일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단 설립', '내부 근무자들의 안전소통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 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자문단을 구성해 안전 전반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은 물론, 이와 별도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종합적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할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직영·협력·외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 곳곳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다 효율적 안전 관리를 위해 기존에 직영·협력·외주업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던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일원화한다. 앞으로는 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현대제철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수렴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안이 수립된 이후에는 실제 작업 현장에 철저히 적용되도록 엄격한 관리감독도 병행한다.

아울러 작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인 소통을 위해 각 사업장에 상시적 안전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현대제철은 듀퐁 등 세계적 산업안전 컨설팅 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성과급·목표 영업이익 상향" 현대오일뱅크, 새 연봉제 도입

현대오일뱅크 노사가 성과급 제한과 목표 영업이익을 기존보다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14일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임단협 타결 주요 내용은 최대 500%였던 기존 성과급 제한을 800%로 늘리는 대신, 목표 영업이익을 기존보다 높이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당시 기본급의 일부를 성과급화하는 대신 성과급은 기본급의 최대 500%로 제한해왔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7년 만에 조정됐다.

노조 측은 "당시 현대오일뱅크가 다른 정유사들에 비해 기본급이 낮았기 때문에 이 같은 구조가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타 정유사와 기본급은 비슷해진 반면, 성과급 테이블만 낮아지게 됐다"며 그동안 성과급 제도 변경을 요구해 온 바 있다. 변효선 기자 hsbyun@

현대·기아車 부진에… 현대위아, 해외법인 70% 적자

전체 매출 중 계열사 비중 85%
中·美 등서 車 판매 실적 악화
작년 매출 5% 늘어난 7.9兆 불구
영업익 70% 감소로 실속 없어

"中완성차업체와 1兆 규모 계약
올해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

현대위아 지난해 해외 실적 *2018년 기준

소재지	기업명	당기순손익
중국	강소현대위아유한공사(제조)	-37억 원
	현대위아공작기계유한공사(판매)	-87억 원
	북경위아터보차져유한공사(제조)	8500만 원
미국	공작기계 판매 법인	-21억 원
인도	부품제조 법인	-2억5000만 원
독일	공작기계 판매 법인	14억 원
멕시코	부품제조 법인	-302억 원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멕시코 법인

현대·기아차 해외실적 부진에 현대위아 해외사업마저 대부분 적자를 냈다. 현대위아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현대위아의 전체 매출 중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는 매출이 85% 수준에 달한다.

14일 현대위아 감사보고서(연결)에 따르면, 현대위아 7개의 해외법인 중 5개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법인의 70%가 손실을 낸 셈이다.

현대위아는 현재 중국 법인 3개(강소현대위아유한공사·현대위아공작기계유한공사·북경위아터보차져유한공사), 미국 법인 1개(기계 판매), 인도 1개(부품 제조), 독일 1개(기계 판매), 멕시코 1개(부품제조) 등 총 7개의 해외 법인을 운영 중이다.

중국법인은 현대·기아차의 극심한 현지 판매 부진과 맞물려 3개 중 2개가 적자를 냈다. 강소 법인은 2017년까지만 해도108억 원가량 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 적자 전환했다. 판매 법인인 현대위아공작기계유한공사는 지난해 87억 원의 순손실을 내며 1년 만에 적자폭을 7배나 키웠다.

현대·기아차는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중국 시장에서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이후 판매량 급락으로 공장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5월부터 중국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한데 이어 기아자동차도 비슷한 시점에 옌청 1공장 가동 중단 계획을 세웠다.

미국시장에서도 현대·기아차 판매량 감소로 현대위아 미국법인 역시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 현대위아 미국법인은 지난해 21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9% 감소한 67만7946대를 판매했고, 기아차도 1.7% 줄어든 59만583대를 기록했다.

멕시코 법인 역시 현대위아에는 아픈 손가락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302억 원을 기록하며 1년 만에 적자 폭을 3배나 키웠다. 2016년 설립된 멕시코 법인은 대규모 초기 투자 이후 2018년 초부터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3분기까지도 부진한 가동률과 고정비 부담이 이어지며 손실이 확대됐다. 다만, 기아차 멕시코공장(KMM) 판매 실적이 연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어, 현대위아도 올해부터는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외에도 현대위아 인도법인은 2017년만 해도 4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1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해외법인들의 실적 부진으로 현대위아의 지난해 전체 영업 성적은 우울하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7조8880억 원을 기록하며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년 만에 70% 가까이 급락한 50억 원을 기록하며 실속없는 장사를 한 셈이 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문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시장 환경 악화로 수익성 회복 속도는 더디지만 중국에서의 누우(엔진명) 판매 증가, 서산 공장 및 멕시코 공장의 생산 물량 증가, 국내모듈 증가로 실적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현대·기아차의 그늘에서 벗어나 중국 완성차 업체와 1조 원이 넘는 엔진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가 외국 완성차에 대규모로 엔진을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삼성전자 '갤럭시S10 디스플레이 기술' 간담회

"카메라, 화면 속으로 넣을 것"

'대화면' 소비자 수요 반영
카메라 구멍 획기적 축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카메라 구멍을 획기적으로 줄여 보이지 않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진행된 '갤럭시S10 디스플레이 기술' 브리핑에서 "'인피니티 오(O) 디스플레이'보다 카메라 구멍이 작은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면 카메라를 제외한 스마트폰 화면이 디스플레이로 꽉 찬 홀 디스플레이(hole display)를 탑재한 갤럭시S10은 올레드(OLED)에 구멍을 뚫은 유일한 제품이다. 최근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넓은 화면으로 게임, 영화를 즐기고 싶은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 스마트폰에 도입하는 디스플레이 크기를 키우고 있다.

양병덕 삼성전자 디스플레이개발팀 상무는 "올레드는 유기물이라 구멍을 뚫었을 때 습기가 소량만 들어와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기술적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발전된 투습 방지 기술을 접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멍을 줄이면 카메라 성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카메라 구멍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상무는 "궁극적으로는 카메라, 리시버 등 모든 센서를 화면 안으로 들여오는 게 개발 방향"이라며 "LG전자가 G8 씽큐에서 구현한 것처럼 스피커를 디스플레이에 내장한 크리스털 사운드 올레드(CSO) 기술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갤럭시S10에 처음 적용된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양 상무는 "지문인식이 디스플레이에서 무리 없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쳤지만, 아웃라이어(소수 예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사용환경을 커버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며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문인식 센서의 인식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현대로템, 고속 프레스 소재 공급장치 첫 개발

현대로템은 14일 고속화된 초대형 프레스 소재 공급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프레스 소재 공급장치는 자동차 외판용 소재를 자동으로 프레스에 공급해주는 장치로 금속 소재를 구부리고 절단해 가공하는 프레스 라인 설비의 핵심 장치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에 자체 개발한 프레스 소재 공급장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능의 초고속 프레스 라인 수요 발생에 대응하고자 201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것"이라며 "2년에 걸쳐 개발한 세계 최대 속도 수준의 소재 공급 장치"라고 설명했다.

개발한 프레스 소재 공급장치는 최첨단 제어기술 및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최대 분당 18장(18SPM·Stroke Per Minute)의 자재를 프레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현대로템이 고속화된 초대형 프레스 소재 공급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14일 전했다. 사진은 현대로템이 납품한 프레스 라인.
사진제공 현대로템

The Banker誌 (더 뱅커지)
'2018년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선정

우리금융그룹

2019

우리은행 창립

120 주년

1899

고객과 함께 120년 우리의 미래

1899년, 민족자본으로 시작한 우리은행
120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세계금융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한눈에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

우리은행

건축 자재부터 인테리어 시공까지 '원스톱 복합매장'

'에이스 홈센터·홈데이' 용산점 오픈

건축자재부터 인테리어 상담·시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매장이 선을 보인다.

유진그룹은 국내 최다 상품 구성을 자랑하는 홈 인테리어와 건축자재 복합매장 매장인 '에이스 홈센터&홈데이 용산점〈사진〉'을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이스 홈센터&홈데이 용산점은 건축 및 인테리어자재·공구·철물·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에이스 홈센터(이하 홈센터)'와 인테리어 리모델링과 신개축을 전문으로 하는 '홈데이'가 한 곳에 위치한 결합형 매장이다.

홈센터와 홈데이의 결합형 매장은 집 수리에 필요한 상품들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고, 인테리어 상담과 시공까지 한곳에서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용산점은 지난해 9월 기존 홈데이 목동점에 홈센터가 통합된 데 이은 두 번째 매장이다.

목동점의 경우 셀프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각기 다른 관심을 가진 고객들의 방문이 증가하며 집객 효과를 누리고 있다. 자연스럽게 매장을 둘러보며 인테리어 시공상담부터 필요한 물품 구매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 고객들의 재방문과 시공 건수도 늘고 있다. 실제 매장 통합 전후 3개월 기준으로 홈데이는 상담고객이 124%, 계약 금액은 71%나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영업면적 2704㎡ 지상 2층
건축·인테리어 자재 공구 등
4만 가지 상품…국내 최대 규모
상담·시공 등 고객 편의성 높여

유진그룹은 홈센터와 홈데이 브랜드 간에 상호보완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기존의 홈데이 잠실점을 비롯해 향후 신규 오픈하는 매장들도 결합형 매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에이스 홈센터&홈데이 용산점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예전 전자랜드 별관에 위치해 있으며, 영업면적 2704㎡(818평형)에 지상 2층 규모다.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공구·페인트·생활용품 등 10여 개의 다양한 카테고리에 가정용부터 전문가용까지 아우르는 총 4만여 가지의 상품을 갖추고 있다. 상품 규모로는 홈 인테리어·건축자재 전문 오프라인 매장 중 국내 최대 규모다. 에이스 홈센터&홈데이 용산점은 개인부터 사업자까지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특화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종 작업현장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지 않고 렌털해 주는 서비스도 마련했다. 예초기, 엔진톱, 용접기 등 20여 종에 달하는 고가의 특수장비들을 소정의 대여료만 지불하면 최장 1개월까지 빌려 사용할 수 있다. 또한, DIY와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개인 고객들을 위해 정기적 DIY 클래스 및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적 설치 및 시공이 필요한 경우 일반 고객과 개인 사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프로(PRO)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고객은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고민을 쉽게 해결하고, 등록된 개인 사업자는 신규 고객을 확보해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 '품질·상생 경영' 통했다

매트리스 중요 소재 개발
직접 생산 품질유지 노력
부지 매입·매장 리뉴얼 등
대리점주 임대료 부담 낮춰
작년 매출·영업익 사상 최대

안성호〈사진〉 에이스침대 대표의 품질·상생 경영이 결실을 맺고 있다.

14일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별도 기준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73% 증가한 2257억 원, 24.37% 증가한 40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이다. 같은 기간 당기 순이익도 264억 원에서 286억 원으로 8.5% 늘었다.

에이스침대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배경으로 안 대표의 세 가지 경영 전략, 즉 품질, 상생, 대형화를 꼽았다. 현재 에이스침대는 최고의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사 매트리스 제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자체 공장에서 진행한다. 매트리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 소재를 개발해 직접 만든다는 뜻이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침대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들을 직접 생산하는 소재 공장을 운영하는 브랜드도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자체 생산 및 가공 시설은 지난해 불거진 라돈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안 대표는 자사 대리점주들이 시세 상승으로 인해 메인 거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본사 부지 매입 및 건축·대리점 입점'의 윈윈 전략을 세웠다. 상권 개발로 갈수록 높아지는 임대료 부담을 대리점주가 혼자 부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에이스침대는 전국 거점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신축해 대형 매장을 만들거나 기존에 노후한 에이스 매장을 리뉴얼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줄곧 에이스침대의 제품력을 기반으로 '체험'을 강조하며, 매장에서의 소비자 접점 확대에 관심을 뒀다. '침대만은 직접 누워보고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안 대표의 이런 의지는 도심 내 대형 매장인 '에이스 스퀘어'와 '에이스 에비뉴'를 전국 거점별로 확대해가며 실현하고 있다. 에이스침대의 대형 매장들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체험을 통해 제품의 장점을 고객들이 체감하며 니즈에 꼭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트리스에 직접 누워볼 수 있는 체험 구역이 있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체형에 맞는 매트리스를 추천받을 수 있는 큐레이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에이스침대는 하이 퀄리티·트렌드 가구 편집숍인 '에이스 에비뉴'는 2008년 서울점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까지 총 4개점을 열었고, 2014년부터는 도심 내 대형 매장인 '에이스 스퀘어'를 확대해 현재 전국에 1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서점조합연합회, 대형서점 3사와 상생 협약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적합업종 1호 신청 업종인 '서점업'에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구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교보문고·영풍문고·서울문고와 서점업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상훈(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해권 서울문고 본부장,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박영규 교보문고 대표, 최영일 영풍문고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동반성장위원회

"5G 체험하세요"… 기선제압 나선 이통3사

KT 광화문 광장·LGU+ 코엑스에 체험관 설치… SKT 전국 30곳으로 확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앞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체험관을 설치하고 치열한 홍보전에 나선다. 고객들에게 실제로 5G 관련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동시에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광화문 광장에 5G 체험관을 15일 개관한다. 광화문광장 한복판에 이통 3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전시관을 꾸몄다. 이곳에서는 5G망을 활용한 VR·AR 자율주행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KT 매장 안내 로봇인 '지니봇'을 통해 고객 체험을 진행한다. 무인 로봇카페도 선보인다. KT의 AI플랫폼 기가지니 솔루션을 적용한 로봇카페는 음성으로 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음료를 추천하고 고객 질문에 대답도 가능하다. 5G 미션룸, 5G 테크놀로지, 5G 스포츠 존을 구성해 다양한 AR·VR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5G폰도 전시해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최근 KT는 '당신의 초능력'이라는 5G 캠페인을 시작했다. 5G를 통해 무엇이든 가능해지는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일부터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U+5G체험존'을 운영하고 있다. 개관 10일 만에 누적 방문객 3만 명을 돌파했다.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의 유동인구가 일평균 1만 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0% 이상이 LG유플러스 체험존을 방문한 셈이다. U+5G 체험존에서는 LG전자의 5G 스마트폰인 V50 씽큐를 통해 5G VR·AR를 비롯, 5G 프로야구·골프·아이돌Live 등 LG유플러스의 다양한 5G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5G 증강현실 'U+VR'이다. HMD(Head Mounted Display·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스타와 현실처럼 생생하게 만나는 스타 데이트 △만화 속 세계로 직접 들어가 등장 인물이 된 듯 즐기는 VR웹툰 △태양의 서커스를 실감나게 즐기는 공연 예술 △게임 속 주인공이 되어 몰입해서 플레이하는 VR게임 등 Full HD보다 4배 선명한 초고화질로 압도적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는 3D VR영상에 고객이 몰리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세계 1호 5G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S10 5G'와 'LG V50 씽큐 5G'를 을지로 본사 1층 ICT체험관 티움(T.um)에 전시한다. 이곳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5G 상용망과 연결된 5G스마트폰을 직접 만져보고, 각종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5G 상용화에 맞춰 '5GX 체험존'도 전국 30여 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객들은 5G 스마트폰 출시 전 체험존에서 AR·VR, 미디어 등 다양한 5G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대체복무 유지해야"

'청년 기술인력 유입' 토론회

"전방의 전선만이 전쟁터가 아니다. 산업 전선의 전쟁도 중요한 전쟁터다.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없애면 중소기업이 인력을 충원할 방안은 외국인 인력 유입밖에 없을 것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폐지 부작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외국 인력은 국내 인력처럼 쉽게 활용하기는 힘들다"며 "병역 대체복무가 어느 시점에서 폐지된다면, 부작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나 고용노동부 등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병역 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과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 대체복무제도로 3조493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만5022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 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두루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 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고졸자가 취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인력 양성, 사회 진입, 사회 정착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역량과 미흡한 숙련 교육,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졸자의 하향 취업으로 고졸 일자리 감소,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열악한 근로 조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 다양화, 지역별 '(가칭)산학협력 정례협의회' 운영,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돈줄 막힌 홈플러스…'임일순의 마스터플랜' 비상등

〈홈플러스 사장〉

4.3兆 규모 리츠 상장 철회에 온라인 사업·창고형 할인매장 중기 투자계획 자금 확보 차질 실적 부진에 체질개선 급한데 사업축소 불가피…"재상장 도전"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

홈플러스 리츠 상장이 철회되면서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 12곳과 창고형 할인매장인 스페셜 점포 매장 82곳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의 중기 마스터플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투자금 확보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당초 목표치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14일 리츠 상장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리츠는 4조3000억 원의 국내 자산 규모를 자랑했다. 공모 희망가는 4530~5000원으로, 공모 규모만 1조5650억~1조7274억 원에 달했다. 시가 총액은 2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리츠 측은 홈플러스홀딩스의 매장 44곳과 홈플러스스토어즈의 매장 7곳을 매입한 뒤 임대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이 중 90% 이상을 다시 주주들에게 6개월 단위로 배당해 연 6~7%의 수익률을 낼 것으로 자신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51개 매장을 리츠에 매각하면서 4조 원 이상을 확보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회사 인수를 위해 조달한 4조 원대의 차입금 중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온라인 사업 및 창고형 할인매장 강화 등 신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이자비용 1300억 원도 투자로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리츠 상장 철회는 이런 임 사장의 플랜에 직격탄을 날렸다. 홈플러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2980억 원, 1826억 원의 당기순손실 이후 2016년 흑자전환(3231억 원)했지만, 2017년에 다시 전년보다 당기 순익이 28% 감소(2399억 원)하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내수 부진으로 당분간 출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에는 동김해점과 부천중동점을 폐점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실적 역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투자 확대와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 사이 경쟁업체인 신세계는 지난해 1월 디지털 시프트를 선언해 온라인 1조 원 투자 계획을 알렸고, 10월에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의 투자를 끌어냈다. 올해 3월에는 온라인 통합법인 SSG닷컴을 출범시켰다. 롯데 역시 작년 8월 이커머스 사업본부를 신설, 5년간 3조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온라인 매출 2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비해 홈플러스는 대주주 MBK 매각설에 시달리며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못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2015년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사모펀드는 이윤을 남겨 되파는 것이 최대 목적인 만큼 3~4년간 투자가 주춤했다. 하지만 최근 리츠 상장을 추진하며 매각설을 잠재웠다. 무엇보다 자금 수혈을 통해 중장기 투자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특히 3월 말로 예정된 간담회를 통해 임 사장은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 배송센터를 늘리고 창고형 할인점포인 '스페셜 매장'을 확대하고, 육가공센터 증가를 통해 신선식품 비중을 늘리는 등의 중장기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졌다. 유럽 최대 유통연합인 EMD 가입에 따른 PB제품 수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전략은 모두 리츠 상장 흥행이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리츠 상장 철회에 따라 투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투자 계획 역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우선 종전 3월 말 예정이던 간담회를 4월로 미뤄 일부 계획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투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리츠 흥행에 따라 투자금이 더 늘어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상장 철회에 따라 최초 플랜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 철회가 아닌 만큼 재검토 후 다시 상장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100일 만에 200만 방문·1000억 매출

롯데아울렛 기흥점, 대박 났네

기존 아웃렛 점포보다 2배 성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이 초반 흥행에 성공하며 안착하고 있다.

14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은 기흥점이 오픈 100일간 총방문객 200만 명,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매출 10억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기존 아웃렛 점포들 대비 2배 이상 높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이하 기흥점)은 동탄 신도시·수원·분당까지 30분 내, 서울 경기권에서 60분 내 접근이 가능하며, '자연을 담은 쇼핑 놀이터'란 매장 콘셉트를 통해 기존 상업형 아웃렛과는 달리 가족들이 함께 방문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해 12월 6일 오픈했다.

기흥점 방문 고객의 대다수는 용인·화성·수원 고객들로 전체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탄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소비력이 높은 30~40대 고객들이 해당 지역에 많았지만 생활 수준 대비 상업시설이 부족했던 부분의 갈등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매출 중 유아동 브랜드 매출 구성비가 기존 아웃렛 대비 1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흥 지역의 부모 고객들의 수요를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숲모험놀이터'의 경우 주말 일평균 2000여 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기흥점의 명소가 되고 있다.

이에 기흥점은 오픈 100일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16일부터 17일까지 '1층 숲모험 놀이터'에서 '대형 룰렛 게임'을 진행해 롯데상품권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14일부터 20일까지 지하1층 이벤트홀에서 '봄맞이 영패션 대전'을 진행해 '온앤온', '주크' 등의 이월 봄상품을 정상가 대비 최대 7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정후식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점장은 "기흥점은 즐거운 쇼핑과 휴식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무인항공기 사러 오세요 트레이더스 월계점이 14일 오픈을 맞아 '무인항공기(드론) 로드쇼'를 선보인다. 트레이더스 월계점은 23일까지 성우엔지니어링과 협력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리모에이치(REMO-H) 등 무인항공기를 판매한다. 가격은 8000만 원에서 1억8700만 원 선이다. 성우엔지니어링은 순수 국내 기술로 무인항공기를 연구개발·생산·시험하는 기업으로,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국내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양산해 상용화했다.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는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 방제 작업과 의약품 배송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농업 법인, 골프장 등이 주 고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이마트

스타벅스 유튜브 채널 '스벅TV' 개국

임직원 출연해 고객 소통 강화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스타벅스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 안에 '스벅TV'를 개국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새로운 콘텐츠인 '스벅TV'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스벅TV는 스타벅스 파트너(임직원)들이 진행자로도 출연하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다. 운영 서비스, 제품, 매장, 커피 등 다양한 소재를 선별해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마이 DT 패스(My DT Pass)',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운영 서비스를 진행자가 직접 체험해 보거나, 특성화돼 있는 전국의 다양한 매장들을 방문해 소개하는 한편, 커피대사가 진행하는 커피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또 파트너, 고객, 외부 전문가 등을 찾아가는 형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해 나가는 콘텐츠도 소개할 예정이다.

스벅TV 개국 첫 번째 콘텐츠는 고객이 자신의 닉네임을 등록하면 파트너가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을 주제로 삼았다. 현재 400만 명의 고객들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통한 소통 과정을 소개하면서 진행자가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는 한편, 닉네임에 대한 파트너들의 다양한 반응과 의견을 담았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이 궁금해하는 매장이나 음료, MD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보기도 하고, 스타벅스 매장뿐만 아니라 외부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스벅TV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서울 시내에 IKEA 'O2O·미니 점포' 생긴다

소비자 접점 확대 움직임

국내 가구 시장에서 3위로 올라선 이케아가 O2O 매장, 시티센터 등 서울 시내 소형 점포 출점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는 2021년께 서울 노원구에 온라인몰 픽업 서비스 등이 가능한 O2O(Online to Offline) 점포 오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서울 시내 도심, 부도심에 '시티센터'란 명칭으로 소형 점포를 출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케아는 현재 광명(2014년 오픈), 고양(2017년) 등 2곳에 대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 완공될 연면적 9만1000㎡ 규모의 기흥점을 비롯해 동부산점, 계룡점 등 2020년까지 신규 매장 6곳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광역 상권 출점을 통해 집객 기대감을 불러모으는 한편 서울 시내 소형 점포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가구업계가 온라인몰을 강화하지만,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편을 선호하는 가구 구매 특성상 쇼룸이 필요하다. 서울 시내 소형 점포 출점을 통해 커다란 매출 반등보다는 소비자 구매 편의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지난해 8월 설립 75주년을 맞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HEJ IKEA 75' 임시 매장을 오픈한 바 있다. 이 매장 역시 도심 거주 소비자와의 스킨십을 늘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당해 4월 방한한 예스페르 브로딘(Brodin) 이케아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접점을 늘리기 위해 기존 교외형을 넘어선 도심형 매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케아 측은 "국내 확장 계획을 갖고 다양한 사이트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추가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점포 형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로는 이케아가 유통산업 규제 법망을 피해가면서 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주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전문점 가운데 현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도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케아의 전 세계 매장 중 매출 1위를 차지하는 광명점 규모는 5만7100㎡, 고양점은 5만2200㎡이다. 이케아는 대규모 점포에 준하지만 실상 전문점으로 분류돼 있으며, 매출액 규모는 대규모 점포와 비슷하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2017년 7월 스타필드 고양점 개장식에서 "이케아도 휴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겨냥하기도 했다.

한국 진출 4년 만에 한샘, 현대리바트에 이어 업계 3위로 성큼 올라선 이케아코리아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매출이 4716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연간 방문객 수는 34% 증가한 870만 명, 패밀리 멤버 가입자 수는 160만 명을 넘어섰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착한 기업'에 투자 ESG 펀드 인기

환경·지역사회 공헌 포괄 개념
'기업 사회책임투자' 요구 확대
ESG ETF 연초 이후 5.28% 수익

환경과 사회, 주주를 생각하는 착한기업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ESG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사회책임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ESG ETF(상장지수펀드)가 연초 이후 5.28%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ETF는 기업지배구조원의 사회책임투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등이 포함됐다.

최근 기업들에 사회책임투자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권, 노동, 지역사회 공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발맞춰 다수의 상장사들은 배당 확대를 선언하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ESG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 추이

(단위 : %, 3월 13일 기준) ※출처 : 에프앤가이드

펀드명	3개월	연초이후	설정일
한화ARIRANGESG우수기업	6.17	5.26	2017년 8월 29일
하이FOCUSESGLeaders150	3.85	3.18	2017년 12월 12일
미래에셋TIGERMSCIKOREAESG유니버설	6.07	7.12	2018년 2월 6일
삼성KODEX MSCI ESG유니버설	5.73	6.55	2018년 2월 6일
KBKBSTARESG사회책임투자	5.11	6.64	2018년 2월 26일
미래에셋TIGERMSCIKOREAESG리더스	4.78	5.00	2018년 2월 6일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주제안을 비롯해 사회책임투자 활동 증가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ESG와 같은 사회책임투자 펀드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격적인 행동주의 펀드와 달리 사회책임투자 펀드의 운용 전략은 대화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설정된 ESG ETF는 총 6개다. 모두 2년 안에 신규 설정된 상품들이다. 상품별로는 '미래에셋TIGERMSCIKOREAESG유니버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의 수익률이 7.12%로 가장 높았고, KBKBSTARESG사회책임투자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6.64%), 삼성KODEX MSCI ESG유니버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6.55%)가 뒤를 이었다.

세계적으로도 사회책임투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TF를 통한 투자 증가로 전 세계 ESG펀드 운용자산 규모는 2012년 말 6550억 달러(741조 원)에서 지난해 말 1조500억 달러(1189조 원)으로 60% 가까이 성장했다.

공경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ESG펀드의 97% 이상이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규모나 수익률 면에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사회적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ESG투자는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입김 세진 의결권 자문사들 "독립성 훼손 사외이사 반대"

금융권·법조계 출신 기업과 이해관계 얽혀 공정성 제한

올해 주총에도 어김없이 금융권·법조계 고위공직자 출신이나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들이 무더기로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인 가운데, 의결권자문사들이 '반대 의견'을 잇달아 표명하고 있다.

최근 의결권자문사들은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결권자문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원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ISS △글래스루이스 등이다. 의결권자문사는 주요 기업의 주총 안건을 분석한 뒤 기관투자가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 회사를 말한다.

20일 주총을 앞둔 삼성전자는 사외이사 후보로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를 재선임하고,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를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박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성균관대학교는 기업 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으로 충실한 사외이사로서의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도 "현재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의 이사회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이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다수 선임돼 있다"며 "삼성그룹과 성균관대학교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GS리테일에 대해서도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지적이 이어졌다. GS리테일은 15일 열리는 주총에서 하용득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한다. 하 변호사는 과거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GS건설 부사장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변호사를 맡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하 후보는 2015년까지 GS건설의 법무·홍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퇴임했는데 이는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또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는 GS리테일의 수퍼사업부와 관련한 소송과 개발부문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어 상법상으로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현대미포조선,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삼광글라스, LG화학, 기아자동차, 신세계, 현대건설, 효성, 포스코강판, 신세계인터내셔날 등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에 의결권자문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감독은 시장 규율이든 규제 규율이든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의결권자문사들이 직면한 이해상충 문제나 업종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데이터 오류, 방법론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국민연금, 현대차 '백기사'로 나섰다

사내·사외이사 선임 사측 제안은 모두 찬성
엘리엇 주장 "高배당·사외이사 확대"는 반대

국민연금이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과 갈등 중인 현대자동차 '백기사'로 나섰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주주총회 안건 갈등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배당과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등 사측 제안에 모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의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탁자위는 "현대모비스 및 현대차의 회사 측 제안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의 건에 대해 엘리엇이 제안한 배당수준 등이 과다하여 회사 측 제안에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현대차에 주당 2만1967원의 현금배당을, 현대모비스에는 2만6399원을 제안했다. 반면 현대차는 주당 3000원, 현대모비스는 주당 4000원을 제안했다.

수탁자위는 현대모비스 이사 정원 한도를 11인 이하로 확대하려는 엘리엇의 정관개정 주주제안에 "회사 규모, 사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의 사외이사 선임 제안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도 회사 측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결정했다"면서도 "특정 일가의 권력 집중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소수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탁자위는 이날 함께 심의한 기아차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정의선 부회장과 박한우 사장의 기아차 사내이사 재선임 건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남상구 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은 "한전 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효성 사외이사로 손병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재선임하는 안건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은 반대한다. 수탁자위는 "후보들이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NH투자證, 서울대와 노후설계연구 협약

NH투자증권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과 2022년 2월까지 향후 3년간 노후설계 해법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 개발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서울대학교와 지난 6년간 배타적 계약을 통해 노후 설계 해법에 대한 상호 연구조사와 VIP 고객 대상 차별화된 은퇴준비 &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양 기관은 2012년 첫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0세 시대 준비지수를 공동연구 발표했으며, 같은 해 교육프로그램인 '100세 시대 인생대학'을 공동 개발해 지난해 11월까지 총 13기수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서울대학교와 NH투자증권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난 6년간 지속해온 대한민국 국민의 100세시대 준비와 노후 설계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상장 철회·연기… IPO시장 위축세 이어지나

홈플러스 리츠·케이티비네트워크 대외환경 고려 잇달아 상장 철회
'대어' 현대오일뱅크는 일정 연기

최근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계획을 철회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이 올해도 위축세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불을 지핀 것은 한국리테일홈플러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홈플러스 리츠)였다.

당초 홈플러스 리츠는 올해 1분기 중으로 IPO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4일 돌연 유가증권시장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회사 측은 "수요예측 시행 결과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을 고려해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리츠는 당초 공모를 통해 1조5000억~1조7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 결과가 당초 기대치를 밑돌자 상장 계획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TB투자증권도 13일 종속회사인 케이티비네트워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케이티비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상장 예비심사 승인까지 받았으나 주식시장 침체 및 동종 기업의 주가변동 등 부정적인 대외환경을 고려해 승인 유효 기간(올해 4월 말) 내 상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운영 전문기업인 KMH신라레저와 SK인천석유화학도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어급'으로 거론되는 현대오일뱅크는 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도 상장이 연기된 상태고 국내 3위 생명보험사인 교보생명도 올해 하반기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창재 회장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재무적 투자자(FI)들과 분쟁을 겪으면서 상장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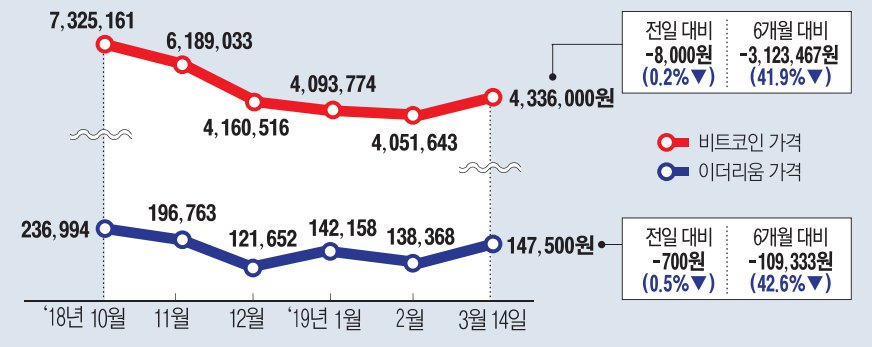
이처럼 기업들의 상장 계획 철회가 잇따르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PO 시장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공모액은 총 2조7505억 원으로 전년도 공모액(7조9741억 원)의 3분의 1(34.5%) 수준에 그쳤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3월 14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146,000	2,700 (1.9%▲)	모네로	55,900	-700 (1.2%▼)
리플	348	1 (0.3%▲)	비트코인골드	14,190	220 (1.6%▲)
라이트코인	62,100	-1,050 (1.7%▼)	이더리움 클래식	4,704	-49 (1.0%▼)
대시	98,800	-4,700 (4.5%▼)	퀀텀	2,355	-54 (2.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2세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세금없는 富 대물림'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 홀딩스 지분 전량 일진파트너스 통해 장남 승계
일감 몰아주기 논란 계속되자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안하는 유한회사로 전환하기도

일진그룹은 전선과 부품 소재 전문 중견그룹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등을 통한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창업주가 보유한 개인회사 지분을 2세에게 증여하고, 오너 2세는 그룹 일감을 받아 회사를 키워 그룹을 지배하는 최상위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식이다. 이른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이뤄낸 셈이다.

일진그룹은 1967년 창업주 허진규 회장이 설립한 일진전기를 모태로 성장했다. 1976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철선에 구리를 입힌 전선(동복강선)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1982년 일진제강, 1987년 일진소재산업(덕산금속) 등 계열사를 잇달아 설립했다. 이후 공업용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일진다이아몬드를 설립하는 등 사세를 키워 현재는 5개 상장사를 포함해 45개 계열사를 아우르는 총자산 2조6982억 원(2017년 기준) 규모의 그룹으로 성장했다.

일진그룹은 일진홀딩스와 일진머티리얼즈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계열사는 허 회장의 장남 허정석 일진그룹 부회장과 차남 허재명 일진머티리얼즈 대표가 이끌고 있다. 일진홀딩스는 허 부회장(29.1%) 외 특수관계인 포함 총지분이 56.0%, 일진머티리얼즈는 허 대표(53.3%) 외 특수관계자 지분이 총 53.37%다.

일진홀딩스 아래로는 일진전기(57%), 일진다이아(55.6%), 알피니언(94.1%), 아이텍(70%), 일진디앤코(100%), 전주방송(40%), 아트테크(80.9%) 등의 계열사가 포진해 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일진건설과 아이알엠, 삼영자주 등을 100%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별로 지분 구조가 명확히 나눠 있어 업계에서는 향후 형제간 계열 분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허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허 회장이 2013년 일진홀딩스 지분 전량을 허 부회장에게 넘기면서 일단락됐다. 이때 우회 통로 역할을 한 계열사가 바로 일진파트너스다.

일진파트너스는 1996년 설립된 곳으로 최초 사명은 일진캐피탈이다. 애초 금융회사로 설립된 이 계열사는 일진기술금융→일진캐피탈→일진파트너스로 이름이 바뀌면서 운송업체로 변신했다. 현재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되자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진파트너스는 법인 설립 당시 허 회장과 일진전기공업, 일진다이아몬드 등의 계열사가 출자했다.

감사보고서로 확인 가능한 1999년 지분을 보면 ㈜일진과 일진전기공업, 일진다이아몬드가 각각 30.9%씩이며 허 회장이 7.3%다. 이후 허 회장이 2006년부터 지분을 확보해 허 부회장에게 넘겼고 2007년 허 부회장이 100% 지배력을 갖게 됐다.

이후 회사는 사업 분야를 금융업에서 운송업으로 전환하고 그룹의 일감을 떠맡는다. 특히 일진전기의 제품 운송 등을 담당하며 사세가 커졌다. 2010~2012년에는 매출 전체가 일감 몰아주기에서 발생했다. 이에 일진파트너스 매출은 2009년 8억 원에서 2012년 136억 원으로 급격히 커졌다. 이후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로 2017년에는 40%대까지 낮아졌다.

일진파트너스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2008년 지주사 체제로 설립된 일진홀딩스 주식을 매입한다. 2013년에는 허 회장 지분 전량(15.27%)를 전량 매입해 지분율을 24.64%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에 허 부회장 지분을 더하면 과반이 넘는다. '허정석→일진파트너스→일진홀딩스→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된 셈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일진파트너스 (단위 : 백만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	13,551	1,278	1,876	1,334	1,511	1,953
영업이익	809	733	1,077	580	960	603
내부거래	13,551	1,006	1,394	878	1,186	852
비율	100.0%	78.7%	74.3%	65.8%	78.5%	43.6%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임지선 보해양조 단독 대표체제 첫해

수익 줄고 부채만 늘었다

소주 매출 부진에 영업비용 증가
작년 영업손실 109억… 적자전환
금융자산 투자 늘어 현금 손실도
부채비율 119%서 189%로 껑충

임지선〈사진〉 단독 대표체제를 맞은 보해양조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로 현금 흐름 역시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보해양조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6% 감소한 820억 원, 영업손실은 109억 8400만 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도 278억7300만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주 제품의 매출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며 "시장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한 제품군과 관련한 기계장치의 손상차손 인식으로 인해 기타 영업비용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적 부진과 함께 재무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보해양조의 부채비율은 188.89%로 118.7%였던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사모채를 발행한 탓에 3분기 기준 단기 차입금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274억 1200만 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늘고 총자본이 줄어들면서 자본금 대비 총자본 비율 역시 급감했다.

206.2%이던 비율은 143.7%로 줄었는데, 그만큼 자본금과 총자본의 금액 차가 줄었다는 의미다. 자본금이 총자본을 역전할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해양조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채원영·임지선 각자 대표 체제에서 임지선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임 대표는 창업주인 임광행 전 회장의 손녀로, 경영 3세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됐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금융자산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해양조의 유동금융자산은 168억 9232만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약 44배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투자가 153억6265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투자는 2017년엔 전혀 없었던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수익증권이 120억 원, 채무증권은 34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를 이어간 만큼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악화했다. 영업활동의 경우 현금흐름이 -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7% 증가한 반면, 투자활동과 관련한 현금흐름은 -288억6971만 원을 기록, 182.62% 증가하며 재무 부담을 키웠다.

고대영 기자 kodae0@

대부업체 리드코프, M&A 매물로 나오나

대부업체 중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코프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 최근 원매자와 매각 협상을 진행해온 리드코프의 최대주주인 디케이디앤아이(DK D&I)는 현재 거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M&A업계에 따르면 DK D&I와 특수관계인은 보유 중인 리드코프 지분 39.71%(1062만1662주)와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상장사 A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수 구조는 상장사 A가 재무적 투자자(FI)와 700억 원 규모의 사모투자펀드(PEF)를 조성한 후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SPC는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한 후 본격적인 인수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인수 규모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1000억 원 안팎으로 전해진다. 최대 주주 전체 지분 중 전량을 인수할지 일부 경영권 지분만 확보할지에 따라 최종 인수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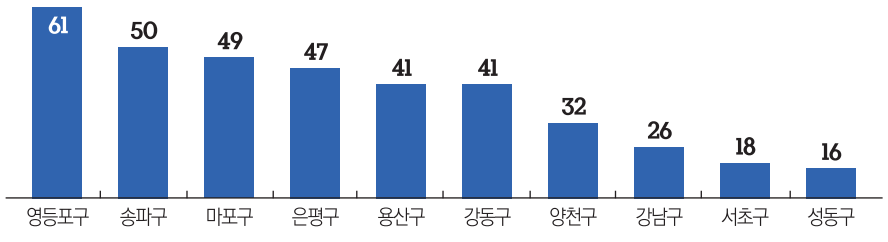
인수를 추진 중인 원매자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리드코프와의 높은 시너지가 기대되는 곳이다.

고종민 기자 kjm@

부자들, 집 파는 대신 물려준다

영등포구, 거래 61%가 증여
송파·마포구도 50% 달해
공시가 상승·세 부담에 증여로

1월 서울 자치구별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증여비율
(단위 : %)



4월 말에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을 앞두고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 증여를 선택한 부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일수록 증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양지영R&C연구소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영등포구, 송파구, 마포구, 은평구 등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나타났다.

1월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로 전체 아파트 거래 325건 중 증여가 198건으로 무려 6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송파구로 631건 중 318건으로 50%, 마포구는 141건 중 69건으로 49%, 은평구는 515건 중 244건으로 47%, 용산구는 66건 중 27건 41%, 강동구는 175건 중 71건으로 41%, 양천구 155건 중 50건 32%, 강남구 308건 중 80건으로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는 감소하는 반면 증여는 올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전국 아파트 매매는 3만1305건으로 지난해 연말 3만3584건보다 6.8% 감소했다. 반면 증여는 지난해 연말 5776건에서 올해 1월 5841건으로 1.1%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증여 증가는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2380건에서 1889건으로 20.6%가 감소한 반면 증여는 1205건에서 1511건으로 2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증여가 증가하는 이유는 4월에 있을 공시가격 인상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임대사업 등록 대신 증여를 택한 것이다.

양지영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강남권과 영등포, 용산구 등의 지역은 명품 기반시설은 물론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많아 보유하고 있으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 결국에는 증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이름값이 수주 좌우"… 아파트 '개명' 바람

호반, 주상복합 '써밋플레이스' 성공
아파트 단지도 '호반써밋' 통합 사용
대우 '푸르지오'→'푸르지오 써밋'으로

건설사들이 브랜드 강화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주택사업에서 신규 택지는 줄어들고 정비사업 물량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름값'으로 수주전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자사 주상복합 브랜드인 '호반써밋플레이스'를 '호반 써밋'으로 바꾸고 아파트단지에도 통합 사용하기로 했다.

기존 '호반써밋플레이스'는 2010년 판교를 시작으로 광교신도시, 광명역세권, 하남 미사, 천안 불당, 시흥 배곧, 시흥 은계 등에서 모두 조기 분양 완료됐다. 이 단지들이 입지, 주거 편의성 등으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호반 써밋'을 아파트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다.

호반건설은 수도권 큰 프로젝트에 '호반 써밋'을 사용할 예정으로, 이달 말 인천 송도에 '호반써밋 송도'를 공급해 첫 시장 반응을 얻게 된다.

대우건설도 이달 28일 '푸르지오'를 새로 단장해 공개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2014년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로 '푸르지오 써밋'을 출시했다. 하지만 2003년 출시한 '푸르지오'가 브랜드명에 들어감에 따라 다소 고급 브랜드 특유의 희소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2015년 분양한 '반포 푸르지오 써밋' 주민들이 단지명에서 '푸르지오'를 빼 '반포 써밋'으로 바꾸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로 '더 플래티넘'을 선보였다. 더 전에는 현대건설이 2015년 '힐스테이트'의 상위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출시해,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이던 반포주공 1단지를 '자이'를 누르고 수주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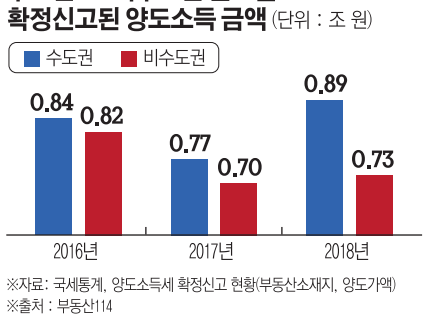
한 건설업계 관계자 "실제 조합원들에게 사업 조건 못지않게 단지 브랜드가 주요 평가 요소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지난해 양도세 18兆 역대 최대… "집값 상승 영향"

예상보다 7조7000억 더 걷혀
거래량은 전년대비 9.6% 줄어

수도권 vs 비수도권 연도별 확정신고된 양도소득 금액 (단위 : 조 원)



※자료: 국세통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출처 : 부동산114

지난해 역대 최대의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거래량이 아닌 가격 급등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114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세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을 거래 증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에 작년 양도소득세가 예산 편성 때 계획했던 것보다 7조7000억 원 많은 18조 원 징수됐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작년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114는 거래량보다 집값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 배경으로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2017년(94만7104건)에 비해 9만885건(-9.6%) 감소한 85만6219건에 그친 점을 제시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실적은 집값 상승과 비례하는 흐름이었다는 게 부동산114의 분석이다. 작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 올라 전년 상승률(5.33%)보다 3.62%포인트 높았다.

부동산114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 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 신고된 양도소득 금액은 2016년 8372억 원에서 지난해 8928억 원으로 2년 사이 555억 원(6.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확정 신고된 양도소득 금액은 2016년 8229억 원에서 작년 7267억 원으로 962억 원(11.7%) 감소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서울시, 성북2·신월곡1 묶어서 재개발

'성곽마을' 성북2 보존 위해

서울시는 저밀관리구역인 성북2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인 신월곡1구역의 '결합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2구역은 3㎞ 정도 떨어진 신월곡1구역과 2011년에 처음으로 결합개발을 추진한 후 7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결합개발을 통해 신월곡1구역에 결합용적률(80%)을 이양하고 그중 48.5%에 해당하는 개발 이익으로 성북2구역을 저층주거지로 정비한다.

'북정마을'로도 불리는 성북2구역은 한양도성 밖 성곽마을이다. 구릉지형에 저층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매년 월월축제를 진행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이다.

서울시는 직선거리로 3㎞ 정도 떨어진 신월곡1구역(고밀개발)과 성북2구역(저밀관리) 2개 재개발구역을 결합개발해 성북2구역을 보존하기로 했다. 성북2구역을 저밀도 용적률인 90%로 제한하는 대신 용적률 600%로 개발 예정인 신월곡1구역에 결합용적률 80%를 줘 680%로 개발하게 한 것이다.

성북2구역은 결합개발 배분 용적률 80% 중 48.5%에 대해 지역 주민 일부가 신월곡1구역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아 성북2구역 정비사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성북2구역은 지역 문화유산 보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새로운 정비계획 방식을 추진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외국 체류 프로선수 종합소득세 부과 못해"

대법, J리그 진출 선수 손들어 줘
"장기 해외 거주자 납세 의무 부당"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주로 생활하며 소득을 올리는 이중거주자에게 납세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A 씨가 동울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 씨는 2007~2014년까지 일본 프로축구리그(J리그)에서 뛰다 2015년 국내로 복귀한 뒤 최근 다시 J리그에 진출했다. A 씨는 J리그 시절인 2014 사업 연도 연봉 7억 4000만 원 중 경비 1억7000만 원과 일본에 납부한 세금 1억2000만 원을 공제한 후 한국에 3400만 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A 씨에게 2014년도 경비, 외국납부세액 등에 대한 적격증빙을 2016년 9월까지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자 종합소득세 7800만 원을 경정 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경정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4400만 원으로 감액되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A 씨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A 씨가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한국·일본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 거주지국이 어디냐에 따라 과세의무의 유무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고, 국내 재산 상황 등에 비춰보면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데도 일본 프로축구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 씨는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했으나 일본에서는 프로축구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한 만큼 항구적 주거가 있는 한국을 최종 거주지국으로 봐야 한다"면서 "A 씨를 한국 거주자로 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 있었고, 국내 체류 일수는 평균 28일에 불과하다"면서 "국내에서 따로 사회활동이나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A 씨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일본이 최종 주거지국이므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서울 봄맞이 새단장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팬지꽃을 심을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 "박병대 前대법관 신한금융 재취업 문제없다"

"신한銀 사건 담당했다고 해서
모회사 취업까지 막긴 어려워"

대법원이 박병대 전 대법관의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취업 논란이 계속되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4일 "박 전 대법관이 취업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에서 신한금융이 직접 당사자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 사건을 담당한 사실은 있다"면서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해석상 자회사 사건을 취급했다고 모회사에 취업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임기 2년의 신한금융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나 지난달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1년 만에 중도 사퇴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임기를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인 2012년 10월 정모 씨가 신한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뒤집어 신한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2017년 4월 재일교포 주주 양모 씨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3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담당한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법관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장효진 기자 js62@

"기업 채용공고 낼 때 보육시설 유무 공지를"

여가부 '양성평등정책 우수제안' 선정

여성가족부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우수 과제로 선정된 9개 과제를 14일 발표했다.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는 일터(48건), 꿈터(83건), 삶터(74건), 기타(15건)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제도 시행'이 선정됐다.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 임산부 편의시설, 직장보육시설 유무,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현황 등 모·부성 보호환경을 미리 안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 중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해 전문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한다. 또 정책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ksh@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행위자 725명 적발

경찰청은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위법행위 436건을 적발하고, 725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혐의가 무거운 4명은 구속됐다. 또 57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65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적발 유형은 조합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 148명(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88명(12.1%) 순이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주총시즌 맞아 경영진 '새판짜기'

제약업계는 지금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

안재현 보령제약 경영 대표

이삼수 보령제약 연구·생산 대표

박기환 동화약품 대표 내정자

'업계 최장수'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 18년 만에 물러나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 떠나고 안재현·이삼수 대표 내정
동화약품·일동제약 등 오너 3·4세 사내이사 선임도 주목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은 제약사들이 경영진 진용 갖추기에 나섰다. 업계 상위 회사들이 최고경영자(CEO) 교체로 분위기 쇄신을 꾀하는가 하면, 오너 후계자들이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리며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최장수 CEO로 잘 알려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18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 삼진제약은 22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장홍순 부사장과 최용주 부사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1974년 삼진제약에 입사, 영업담당 전무와 부사장을 거쳐 2001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해열진통제 '게보린'을 대형 품목으로 키우고, 400억 원대였던 연 매출을 2450억 원까지 끌어올리며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 올해 7번째 연임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1945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재선임이 무산됐다. 삼진제약은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장 부사장과 최 부사장 중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홍 보령제약 사장도 6년 만에 자리를 떠난다. 2013년 김은성·최태홍 각자 대표체제를 꾸렸던 보령제약은 주총을 통해 안재현·이삼수 전문경영인 2명의 각자 대표체제를 본격 출범한다. 안 대표는 경영부문, 이 대표는 연구·생산 부문을 각각 맡아 책임 경영 체제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제일모직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안 대표는 2012년 보령제약에 입사, 전략기획실장을 거쳤다. 이 대표는 서울대 제약학과와 약학대학원을 졸업하고 LG화학 생산·품질팀장, CJ 제약사업부문 cGMP 건설팀장, 셀트리온제약 진천·오창공장장을 역임했다.

동화약품은 21일 주총에서 박기환 전 베링거인겔하임 대표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지난해 2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유광열 전 사장은 같은 해 12월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전 사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설 대표이사(상무)도 한 달 만에 사의를 표명한 후 박기환 대표 내정자가 새로 임명됐다.

오너 3세인 윤도준·윤길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동화약품은 2008년 조창수 사장을 선임하며 오너와 전문경영인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조 전 사장이 임기 만료 1년을 남긴 2012년 사임한 데 이어 박제화 사장, 이숭래 사장, 오희수 사장, 손지훈 사장 등 모두 임기를 다 채우기 전에 회사를 떠나 'CEO의 무덤'이란 불명예스런 타이틀까지 얻었다.

반면 경영 지속성을 위해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를 재선임하는 제약사도 상당수다.

국내 제약사 첫 여성 전문경영인인 유희원 부광약품 사장은 15일 주총에서 재선임될 전망이다. 2015년 3월 공동대표에 선임된 유 사장은 지난해 초부터 단독 대표를 맡아 부광약품을 이끌고 있다.

동국제약은 22일 정기 주총에서 오흥주 사장의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2009년 동국제약 대표이사에 오른 오 사장은 이번이 3번째 연임이다.

이 밖에 박춘식 명문제약 사장, 김동연 일양약품 사장, 이득주 녹십자셀 사장 등이 재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동생인 서정수 셀트리온제약 사장의 재선임 안건 역시 이번 주총에서 처리된다.

이번 정기 주총 시즌에는 오너 3·4세들이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되면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동화약품은 윤도준 회장의 장남인 윤인호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윤 상무가 이사회에 입성하면서 4세 경영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4년생인 윤 상무는 2013년 동화약품에 입사해 4년 만에 상무로 초고속 승진했다.

윤웅섭 일동제약 사장은 지주회사 일동홀딩스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린다. 윤 사장은 일동제약 창업주 고 윤용구 회장의 손자이자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의 장남인 3세 경영인이다. 유유제약 오너 3세인 유원상 부사장도 이사회에 들어간다. 2008년 유유제약 상무로 입사한 유 부사장은 2014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생산공장 짓고 기술이전 계약
'베트남 현지화' 승부 건 제약사

시장 규모 年평균11% 성장
대웅제약, 생산기술 이전하고
대원제약 등 8곳 법인 설립

CJ헬스케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사진제공 CJ헬스케어

국내 제약사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은 국내 의약품 수출 3위국으로, 과거의 완제품 수출 위주에서 공장 설립·기술수출까지 다양한 형태로 베트남 시장에 전략적 접근을 꾀하고 있다.

14일 코트라에 따르면 베트남 제약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47억 달러 규모로 베트남 전체 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11%씩 성장해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현재 약 65개의 국내 제약사들은 다양한 제품 수출 등 약 2000억 원 규모를 형성하며 베트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

특히 한국유나이티드, 신풍제약 등은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대원제약·대화제약·삼일제약·CJ헬스케어 등 8곳은 대표사무소나 법인설립으로 베트남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 상위 제약사 트라파코(Tra-paco)의 지분을 인수한 대웅제약의 경우 현지에서 전문의약품(ETC) 분야 기술이전과 생산이 동시에 가능해지며 시장 확대에 보다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본격적인 기술이전을 진행 중인 대웅제약은 우루사를 포함한 트라파코의 신공장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한 8개 제품을 선정하고 2019년엔 생산기술 이전을, 2021년부터는 제품 판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CJ헬스케어도 숙취해소음료 '컨디션' 유통에 이어 기술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비메디멕스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1500억 원 규모의 베트남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앞서 의약품 유통 및 인허가 전문기업인 린 파마(Lynh Farma)와항생제 '씨네졸리드주(리네졸리드)' 제품 수출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게 된 두 제품 모두 제품허가, 약가 등 현지화에 걸맞은 일련의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베트남에 진출해 2004년 현지 공장의 PIC/s GMP 인증을 받아 화제를 모은 유나이티드제약도 선전 중이다. 신풍제약은 현장 공장을 설립했으며, 삼일제약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점안제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 제약사들의 베트남 진출 현지화 전략을 위해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국가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베트남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제약사들의 진출뿐 아니라 단순 제품 수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베트남 내 시장 확대를 위해 직접투자, 합작투자, 기술제휴를 통한 현지화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베트남제약협회는 양국 제약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실질적 교류·협력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통증 줄이고 투약은 쉽게…당뇨 혈당관리 OK

헬스포커스

신개념 인슐린 투입기

매일 수차례 주사 맞는 당뇨환자
불편함에 혈당관리 실패 가능성
無바늘·부착형 주입 제품 줄이어

아이포트 어드밴스. 사진제공 메드트로닉코리아

당뇨환자들이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인슐린 주입 기구들이 진화하고 있다.

환자들은 그간 하루 1번 이상 인슐린 주사를 투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주사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혈당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국내 당뇨병 환자의 82% 정도는 경구용 혈당강하제로만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많은 의료기기 업체들은 인슐린 투여의 효능을 개선하고, 자가 주사 시 발생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제품의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인슐린 주사와 니들 설계의 변화 또는 바늘을 없앤 주사, 신체에 부착하는 주입 기구 등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신개념 제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최근 'BD 울트라파인 프로 펜니들' 신제품을 출시한 벡톤디킨슨코리아(BD코리아)는 4㎜ 주사침으로 바늘 주변에 위치한 베이스를 넓게 해 인슐린이 피하지방층에 안정적으로 주사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끝을 더 얇고 평평하게 만드는 '5면각 펜타포인트 컴포트 기술'과 약물 흐름의 향상 및 손쉬운 자가주사를 돕는 '이지플로우 기술'을 적용해 자가 주사 시 부드럽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주삿바늘을 몸에 직접 찌르지 않고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제품도 인기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매일 맞아야 하는 인슐린 주사의 편안한 주입을 돕는 '아이포트 어드밴스'를 판매 중이다. 몸에 아이포트 어드밴스를 부착하고 주입구 위에 주사를 하면, 부드럽고 유연한 소프트 캐뉼라를 통해 약물이 주입된다. 직접 피하에 주삿바늘을 찌를 필요 없이 3일 이내 총 75회 미만까지 주사할 수 있는 주입 포트로 만들어졌다.

또 미가교역의 '컴포트인'은 바늘 없이도 인체에 약물 주입이 가능하다. 주사기 끝 머리카락 한 올 사이즈의 구멍을 통해 순간적인 압력으로 약물을 분사해 약액이 피부를 뚫고 주입하게 되는 제품으로, 고통이 덜하며 약물 효능도 빠르게 나타난다.

감염을 막기 위해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도 있다.

메덱셀의 '안전 펜니들'은 인슐린 투여를 위해 펜타입 주사기와 함께 사용되는 일회용 주삿바늘이다. 일반 펜니들과 달리 사용 이후 자동 잠금 장치에 의해 재사용이 불가하며 의료인들의 바늘 찔림 사고로 인한 2차 감염에 대해 예방이 가능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통은 줄이고 주입이 편리한 방향으로 성능이 업그레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펜니들 시장에서 안전 펜니들 시장으로, 얇은 주삿바늘에서 주삿바늘이 사라지는 등 점차 환자 편의에 맞는 인슐린 주입 기구들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잦은 인슐린 주사의 불편함이 몇 년 내 기술발전으로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미세먼지에 지친 목 건강 지킴이

건강한 픽템

부광약품 '사포날 과립'

사포닌 성분 양·한방 복합제

올해 미세먼지가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진해거담제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부광약품은 1980년 발매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은 '사포날 과립'을 리뉴얼 출시했다다.

국내 과립형 진해거담제의 대표 브랜드였던 사포날 과립은 최근까지 생산을 중단했으나, 미세먼지와 황사 등 환경 변화의 요인으로 소비자의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식물성 생약을 주원료로 한방의 장점을 살리고 빠른 효과를 위한 양약을 적절히 배합시킨 양·한방 복합제로 출시됐다.

사포날의 주요성분인 길경은 목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 도라지의 약재명으로, 사포닌 성분이 함유돼 있다.

사포날 과립은 일반의약품으로는 다소 파격적인 패키지 디자인이 눈에 띈다. 곰을 캐릭터로 형상화해 '서핑을 하는 곰'이란 이미지로 황사와 먼지, 흡연뿐 아니라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으로 힘들고 답답한 중장년층의 목을 시원하고 상쾌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사포날 과립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황사, 먼지 등 대기오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기침, 가래, 천식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리뉴얼 출시했다"고 말했다.

사포날 과립은 하루 3~4회, 1회 1포씩 복용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100년의 봄은 그냥 오지 않았다

곳곳에 남은 투쟁의 흔적들

3·1독립선언기념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옥사 내부

경교장 응접실

이상의집 흉상

서대문독립공원 독립문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올 댓 트립 3·1운동 100주년 ① 서울이 품은 함성과 눈물

3월에 맞는 '서울의 봄'은 숭고하다. 서울은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지였다. 서울 역사박물관과 정동길에 선현의 자취가 내려앉고, 서대문독립공원 담장에 온기가 쌓인다. 근대사의 발자취를 좇아보자.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는 3월 가볼 만한 곳의 테마를 '3·1 운동 100주년'으로 정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와 활약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서울역사박물관, 대한제국·일제강점기 등 시대별 변화 한눈에
김구 선생 서거 장소 경교장… 백범일지·밀서·피 묻은 옷 전시

돈의문박물관마을, 예술 공간 변신… 애환 담긴 정동길 산책도
지하옥사·사형장 보존 서대문형무소 '투쟁의 아픔' 고스란히 남아

◇서울역사박물관, 근대사 발자취를 더듬는 도심 여행의 시작점 = 서울 도심 곳곳에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있는 공간이 자리한다.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경교장, 정동길, 서대문독립공원 등은 3·1운동 전후의 시대적 사연이 길목마다 깃든 곳이다. 익숙하게 스쳐 지나던 빛바랜 건물이 3월에는 색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서울은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지였고, 3·1운동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다. 도심의 근대사를 알현하는 템포는 '안단테'가 어울린다. 천천히 골목을 거닐고, 역사의 현장을 되새기며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마음가짐이 소중하다.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등 시대별로 서울의 변화상이 낱낱이 전시되고 있다.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서울)은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합된 후 인천, 개성 등과 함께 경기도의 여러 부 가운데 하나인 경성부로 격하되는 시련을 겪었다.

상설 전시존에는 강제 병합 이후의 도시 경성을 살펴보는 코너가 있다. 성벽과 궁이 훼손되고 새 길이 뚫린 서울, 일제에 저항하면서도 근대 문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당시 서울 사람들의 삶이 사진과 모형으로 전시된다.

◇빛나고 찬란했던 경희궁… 풍운의 세월 '김구 선생 숙소' = 서울역사박물관 외부 공간은 경희궁으로 연결된다. 광해군 때 건립된 경희궁은 '기쁨이 넘치고 빛나는 궁'이라는 뜻이다. 영조와 숙종을 비롯해 10명의 왕이 머물렀고, 인현왕후와 혜경궁홍씨 등 화제의 인물이 거주한 궁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아픈 역사가 있다. 궁궐은 일제가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개조한 대상이고, 그 풍파의 중심에 경희궁이 있었다. 경성중학교가 들어서며 궁궐이 대부분 헐렸고, 흥화문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추모하는 박문사로 옮겨지기도 했다. 전각과 문이 19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빛나던' 궁궐은 지금 숭전전, 자정전 등이 복원된 채 아련하게 남았다.

김구 선생은 1949년 경교장에서 서거했다. 경교장은 이후 중화민국 대사관저, 월남대사관, 병원을 거쳐 사적으로 지정되는 풍운의 세월을 겪었다. 내부에는 '백범일지' 초간본, 서거 당시 피 묻은 옷, 밀서 등이 전시된다.

◇그 시절을 담고 있는 명소들 = 경교장 건너편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일본식 주택, 도시형 한옥, 슬래브 집이 있던 새문안동네에 예술을 덧씌워 도시 재생 방식으로 재구성한 곳이다. 개조한 집과 식당 건물은 박물관, 미술관 같은 전시 공간과 카페 등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겨울에는 '자연을 사랑한 건축가' 훈데르트바서의 특별전이 열리기도 했다. 레스토랑과 한정식집을 개조한 돈의문전시관에는 1960년대 과외방 등 옛 새문안동네 일대의 과거와 동네 사람들 얘기가 담겼다.

돈의문박물관 마을에서 휴식을 취한 뒤에는 정동길을 산책해보자. 정동길에는 근대사의 애환이 담긴 유적이 모여 있다. 구 러시아공사관은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고종이 세자와 함께 피신한 곳이다. 공사관 옆으로 1896년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궁을 떠나 걸어간 '고종의길'이 복원됐다.

◇독립운동의 산실 '서대문' = 근대사를 더듬는 도심 여행은 서대문독립공원으로 이동하며 무르익는다. 서대문독립공원은 3·1운동, 항일 투쟁 등으로 옥고를 치른 선열들을 기리고 그 뜻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른 곳이자, 현재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공원 내에 있다.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경성감옥으로 문을 열었으며, 독립투사를 가두고 고문한 현장이 고스란히 남았다. 옥사 외벽에 걸린 대형 태극기가 이곳이 단순히 옛 형무소가 아니라 뜻깊은 역사의 현장임을 강변한다. 지하옥사, 사형장, 망루 등이 보존됐으며,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당시 시국 사범이 수감된 감옥도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옥사 밖으로는 탑골공원에서 옮겨 온 3·1독립선언기념탑과 서재필 선생 동상, 독립문 등이 시대의 봄 산책을 돕는다.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사직터널 윗길로 향하면 서울역사박물관에 전시 중인 딜쿠샤의 실제 건물과 만난다. 딜쿠샤는 산크리스트어로 '행복한 마음의 궁전'이라는 뜻이다.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앨버트 테일러 부부가 살던 집으로 지하1층, 지상2층 벽돌 건물이다. 다가구주택으로 활용되며 잊혔던 딜쿠샤는 테일러의 아들에 의해 재발견돼 등록문화재 687호(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로 지정됐다.

통인동에는 일제강점기 천재 시인 이상의 자취가 담긴 집이 지난해 말 재개관했다. 이상의집은 시인이 1911년부터 20여 년간 거처한 집터 일부에 마련됐다. 뒷마당에는 이상의 흉상이 세워졌으며, 유작을 포함한 자료 150여 점도 만날 수 있다. 이상의집은 마을 주민과 시민을 위해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

김소희 기자 ksh@

알아두는 여행 tip

숨은 관광명소 발굴 나선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협력 관광지 육성 추진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유망 관광지를 찾아나선다.

관광공사는 "최근 기존 인기 관광지 방문객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근거리 및 단기 여행이 증가하는 국내여행 트렌드가 나타났다"며 "인지도는 낮으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육성해 나가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란 현재는 방문객이 많지 않지만(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 지점 통계 기준 연간 10만 명 이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집중적인 홍보·마케팅 전개를 통해 인기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무료 관광지를 의미한다.

신규 육성할 강소형 관광지는 10개 국내 지사 주관으로 3~4월 동안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각각 1~2개씩 선정된다. 공사는 기초지자체들과 협력해 관광지들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사업과 성과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홍기 관광공사 국내관광실장은 "지역의 신규 잠재 관광지 육성을 통해 지역관광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사 국내지사와 기초지자체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지역주도 관광 마케팅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ksh@

제3회 송음건강마라톤대회는
동성제약 창업자 이선규 회장의 호인 송음의 정신을
계승하여 열리는 건강마라톤대회입니다.

동성제약주식회사

SONGEUM HEALTH MARATHON

도봉구와 동성제약이 함께하는

제3회 도봉송음마라톤대회

2019·04·07(일)
다락원체육공원

대 회 명 : 제3회 도봉송음마라톤대회
대회일시 : 2019.04.07.(일) 08:00~12:00
대회장소 : 다락원체육공원
대회부문 : 하프, 10km, 5km, 5km 가족걷기
대회시상 : 정규시상 : 각 부문 남녀 1~5위(건타임)
이벤트시상 : 각 부문 남녀 6~30위(넷타임)
참가인원 : 3,000명(선착순 접수)
주 최 : 동성제약(주)
주 관 : 아람비
후 원 :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참가신청 : www.songeum.com
문 의 : 송음건강마라톤 운영사무국 031.821.9940

기념품 및 경품

경품 : 3월 중순 홈페이지에 고지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기념품

10만원 상당
오마샤리프 포맨 세트(남)

10만원 상당
오마샤리프 여성 세트(여)

※주최사의 사정에 의해 기념품 및 경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동성제약주식회사 | 주관 아람비 ARAMBI | 후원 KPMA 한국제약협회 KOREA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대한약사회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조성진의 로봇 사랑…"성장 모멘텀 함께 만들자"

〈LG전자 부회장〉

작년 경영권 인수한 로보스타 생산라인 찾아 경영진과 회의
"부품 공용·표준화, 모듈러디자인 등 경쟁력 확보 위해 협력"
CEO직속 사업센터 만들고 CES서 "전사적 역량 결집" 밝혀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의 '로봇 사랑'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조 부회장은 11일 경기도 안산의 로보스타 본사와 수원의 생산라인을 각각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강귀덕 로보스타 대표 등 주요 경영진과 회의를 가졌다. LG전자는 지난해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로보스타(Robostar)'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 자리에서 조 부회장은 "부품 공용화 및 표준화, 모듈러디자인 등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발굴하는 데 서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로봇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로 날아가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글로벌 IT 업계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박사급 인재들과 미팅을 했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는 CEO 직속의 '로봇사업센터'를 신설하고 로봇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박람회(CES)에서는 로봇사업에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부회장은 "생활·공공·산업·웨어러블·엔터테인먼트 로봇 등 총 5가지 카테고리로 로봇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지난해에도 로봇사업 전체의 손익 분기점은 2~3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도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7월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로보스타의 지분 30%를 취득하며 경영권을 인수했다. 양 사는 LG전자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스타의 산업용 로봇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사업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LG전자가 구축할 '지능형 자율공장' 구축에 로보스타의 산업용 로봇 제조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진(가운데) LG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경영권을 인수한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로보스타'를 방문했다. 조 부회장이 로보스타의 다양한 산업용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1999년에 설립된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의 생산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송로봇, 스카라로봇, 수직다관절로봇 등을 생산하고 있다. 로보스타는 최근 수직다관절 로봇을 LG전자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넥센그룹, 경영진 인사 단행

강호찬 사장, 부회장으로 승진
배중열 부사장은 대표이사 사장

넥센그룹은 14일 지주사인 ㈜넥센과 넥센타이어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던 강호찬〈왼쪽 사진〉 사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배중열〈오른쪽〉 ㈜넥센 부사장이 ㈜넥센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2001년 넥센타이어 재경팀 입사를 시작으로, 생산관리팀, 구매팀을 거쳐 경영기획실 상무와 영업본부 상무·부사장, 전략담당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왔다. 그는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경영인으로, 글로벌 생산 확대와 연구 개발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넥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된 배 부사장은 1958년생으로 1983년 평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재경팀과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경영관리 총괄, 생산연구 총괄 임원을 지냈다. 2016년부터 총괄 부사장을 맡아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LG CNS, 중학생 2500명에 빅데이터·증강현실 SW교육

LG CNS가 올해 중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증강현실(AR) 등 IT(정보기술) 신기술을 결합한 소프트웨어(SW) 교육 프로그램인 'LG CNS 코딩지니어스(Coding Genius)'를 실시한다.

LG CNS는 14일 서울 강북구 신일중학교 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올해 코딩지니어스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사진〉

LG CNS 코딩지니어스는 중학생을 상대로 코딩 등의 SW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전국 총 50개 중학교 60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올해는 특히 IT 인재를 키우기 위해 미래 직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증강현실(AR) 등의 IT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LG CNS 코딩지니어스는 올해 서울·충청·호남 등에서 총 22개 중학교를 선정하고, LG CNS 임직원 100여 명이 재능기부 형태로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한다.

김우람 기자 hura@

악화한 韓·日관계 해결사 나선 허창수

경제사절단 이끌고 경단련 주최 B20 도쿄 서밋 참석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얼어붙은 한일관계 속 경제 협력에 앞장섰다.

14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한국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일본 경단련 주최 B20 도쿄 서밋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G20 국가의 대표 민간 경제대표단, 국제기구 등에서 300여 명의 글로벌 경제계 인사가 참석했다. 한국대표단으로는 허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류두형 한화에너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허 회장은 나카니스 히로아키(中西宏明) 일본경단련 회장과 만나 최근 한일관계의 경색에도 양국의 민간 차원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양측은 올해 '한일 재계회의'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허 회장은 개리 리트먼 미국 상의 부회장 등 미 경제계 리더와의 미팅을 통해 한국의 당면 통상 현안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최종 제외될 수 있도록 미국 경제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캐롤린 페어번 영국 산업연맹(CBI) 사무총장 등 영국 경제계 대표단과의 미팅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브렉시트)와 관련해 한·영 간 FTA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서울우유협동조합장 문진섭 당선

서울우유협동조합은 13일 진행된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제20대 조합장으로 문진섭 전 감사가 당선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임 문 조합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 4년간이다.

문 당선자는 파주시 축산계장을 거쳐 서울우유 제12대부터 15대까지 대의원, 제14대·15대 이사, 제22대부터 24대 감사를 역임하는 등 조합 발전에 공로가 컸다는 평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학습' 강조하는 최신원…SK네트웍스 라이브러리 카페 새단장

SK네트웍스는 사내 라이브러리 카페 채움(CHEOOM)에 도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구성원들의 창의적 사고 깊이를 더하고, 지식 공유 및 독서 문화 확산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채움'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는 최신원〈작은 사진〉 SK네트웍스 회장의 의지를 반영, 2017년 명동사옥 1층과 2층에 조성됐다.

이번 개선으로 SK네트웍스 구성원들은 웹페이지와 앱을 통해 손쉽게 채움 도서를 파악하고,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SK네트웍스는 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성원들이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도록 채움에 '사회적 가치' 코너를 새롭게 구성했다.

SK네트웍스 직원들이 라이브러리 카페 '채움'의 새롭게 구성된 '사회적 가치' 코너 앞에서 책을 읽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신한PWM, 프로골퍼 이정은과 자산관리 브랜드 홍보대사 협약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자산관리 브랜드인 신한PWM은 이정은 선수와 브랜드 홍보대사 협약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2011년 출범한 신한PWM은 은행과 증권의 PB팀장이 한 공간에서 고(高)자산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복합 모델이다. 개인들의 자산관리뿐 아니라 CEO 및 법인 대상 자금관리 컨설팅 서비스 , 부동산투자 자문센터 설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PWM은 이정은 선수에게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해준다. 이정은 선수는 이번 시즌 동안 신한PWM 로고가 표기된 의류 착용 후 경기에 나서고, 고객초청 이벤트에 참석하는 등 신한PWM의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곽진산 기자 jinsan@

JLL, 물류전문가 우정하 이사 영입

글로벌 부동산서비스회사인 JLL코리아가 물류 전문가인 우정하 이사를 영입해 물류·산업자산 서비스 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영입된 우정하 이사는 한진그룹의 특송사업본부를 시작으로 CJ GLS 물류사업본부, 도시철도공사 신사업개발단, 로젠택배 물류본부에서 수년간의 물류 마케팅 및 현장 경력을 쌓았고, 세빌스코리아에서 물류사업부를 신설해 확장시킨 물류 전문가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인사

◆**부산항만공사** △물류연구부장 연정흠

◆**라이나생명** ◇이사 승진 △Build 영업본부 유동열 △GA제휴영업본부 전관구 △대면·상품운영부 이승용 △운영심사부 김달수

◆**신영증권** ◇승진 〈전무〉 △스트럭처드프로덕츠본부 김우연 △에셋얼로케이션본부 김대일 △FICC본부 정헌기 〈상무〉 △결제업무팀/경영기획팀/브랜드전략팀/인사팀 김동준 △명동지점/반포지점 허도웅 △법인영업본부 현원식 △스트럭처드프로덕츠세일즈부/에쿼티파생운용부 천신영 △IT센터 원창선 〈이사대우〉 △경영지원팀/재무관리팀 손민기 △고객컨설팅부 강상욱 △대치센터/분당지점 임재경 △리서치센터 김학균 △분당지점 이광윤 △CIS부 신영수 △APEX패밀리오피스부 정종희 △운용지원부/자산운용부 이재연 △ECM부 정성진 △정보보호팀/준법지원팀 이시복 〈부장〉 △감사실 김정일 △대전지점 길진호 △대치센터 원장연 △리스크관리팀 이동규 △IT업무지원팀 홍만기 △APEX패밀리오피스부 강신영 △APEX패밀리오피스부 조연희 △에쿼티파생운용부 조항섭 △커버리지부 김태우 △PI부 이상섭 ◇보직발령·전보 〈본부장〉 △개인고객사업본부 정하재 △상품전략본부 김성수 △크레딧마켓본부 신혁진 〈담당임원〉 △영업부/부천지점 권형진 〈부서장〉 △개발금융부 안재희 △경영기획팀 원덕연 △브랜드전략팀 김수현 △에쿼티파생운용부 이석 △영업전략부 강민규 △운용지원부 박용훈 △인사팀 윤창옥 △재무관리팀 최인태 △전문사모컴플라이언스팀 소은정 △준법지원팀 공영권 △채권영업부 김성현 〈(가칭)신영자산신탁 설립 준비위원〉 △전무 박순문 △이사대우 김동현

◆**전자신문** ◇승진 △사장 편집인 양승욱

부음

▲**김정제** 씨 별세, **김동엽**(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 씨 부친상 = 14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16일, 031-787-1500

▲**김덕례** 씨 별세, **김부종**(자영업)·**부식**(한국조경신문 발행인) 씨 모친상 = 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02-3010-2232

▲**박종대** 씨 별세, **박강수**(일간시사신문·시사포커스 회장) 씨 부친상 = 13일, 새고창장례식장 인(人)실, 발인 15일 오전, 063-563-1001

▲**이분득** 씨 별세, **김정환·경환·상환·정혜·영혜·미혜** 씨 모친상, **오영진**(전 경주초등학교 교장)·**이상근·이부연**(팍스경제TV 대외협력국장) 씨 장모상 = 13일, 청도전문장례식장 특1실, 발인 15일 오전 11시, 054-371-5544

▲**박명순** 씨 별세, **최광호**(금강화스너 대표)·**동호**(고려대 명예교수 겸 경남대 석좌교수)·**민호**(씨누코 대표) 씨 모친상, **김구슬**(협성대 명예교수) 씨 시모상 = 13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2-2258-5940

허찬국의 세계경제

여당이 쏘아올린 '노동개혁'의 공

전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노동계 출신의 여당 중진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연설 내용이 구체화된다면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2000년대 중반 경직된 독일의 노동시장을 크게 변혁시켜 향후 양호한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졌던 성과에 버금가는 쾌거가 될 수 있다.

며칠 전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제조업 중흥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을 강변했다. 나라 밖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라고 지적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잘 알려졌음에도 그간 난제(難題)라는 인식에 정부마다 시늉만 내던 사안인데, 노동계 출신의 여당 중진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연설 내용이 구체화된다면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2000년대 중반 경직된 독일의 노동시장을 크게 변혁시켜 향후 양호한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졌던 성과에 버금가는 쾌거가 될 수 있다.

직장 잃는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고'를 가능케 해줌으로써 사용자들이 고용에 더 적극성을 갖게 하자는 것은 참신한 발상의 전환이다. 연설에서 '유연 안정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언급된 덴마크의 경우 실직자에게 2년간 소득의 70%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한다. 실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맞교환(trade-off)은 그간 경제 전문가들의 숙원이었다. 차제에 해고 이전 단계로 독일의 '단시간근로제'도 고려할 만하다. 불황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되면 사용자는 시간 단축 이전 임금 수준의 60~7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예외 없이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한다. 제품이 잘 팔리면 이익을 내며 위세를 부릴 수도 있으나, 업황이 악화하면 도산할 수 있다. 한때 명성을 날렸으나 사라지거나 주인이 바뀐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변화무쌍한 여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기업은 존속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필요에 따라 인건비와 인력을 조정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 기업을 위한 시혜(施惠·베풀기)가 아니다. 사용자가 사정이 악화했을 때 원만하게 인건비와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은 더 적극적으로 신규 고용에 나서게 만드는 선순환의 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 이전에 비해 뚜렷하게 개선된 독일의 고용 사정이 이를 방증해준다.

원내대표 연설은 근로자들의 전체 급여에서 수당이 많고 기본급 비중이 턱없이 낮은 기형적 임금구조 문제를 적시했다. 근래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총액 기준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기본급에 국한하여 따진 결과 최저임금을 못 받는 '피해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그 필요성이 새삼 부각된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했느냐보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의 독특한 보수체계를 바꾸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미루어져온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좀 더 곱씹어보아야 할 부분도 있다.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3~5년 동결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동결 기간 대기업이 나누어 주는 이익을 이용하여 하청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의 임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허나 대기업이 이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다. 환경이 열악하면 임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작금의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이 이럴 개연성이 높다.

더 근본적으로 이 처방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긴 흐름에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경쟁력 증진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익 공유는 낙수(trickle down)효과에 의존하는 방도인데 이는 하청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원-하청 피라미드에 엮인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시장과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들이 도모하는 정책의 핵심이다.

노조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파업이 아니라 타협도 구성원들을 위하는 방도임을 알아야 한다. 친(親)노조 성향이라는 평을 받는 정부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실리 추구의 방도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절실한 과제이기에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박종진의 **만년필 이야기** ㊱

일본이 '넘버1'이 되지 못한 이유

1964년 도쿄 올림픽 대회 마지막 날 에티오피아의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비킬라(Abebe Bikila·1932~1973)는 이번엔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5주 전 맹장수술을 한 전 대회 챔피언인 그의 우승을 점치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개최국 일본은 이 우승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상식에서 에티오피아 국가(國歌)를 준비하지 않아 대신 자국의 국가를 트는 실수와 결례까지. 이렇게 잘 못 울려 퍼진 국가가 징크스가 되었는지 일본은 지금까지도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못 따고 있다.

마라톤 말고도 일본이 1등을 못하는 것이 또 있다. 만년필이다. 어쩌면 만년필이 마라톤보다 1등을 하기가 더 쉬웠을지도 모른다. 일본은 1880년대 중반 이미 만년필의 한 종류인 스타이로그라픽 펜을 만들었고, 비록 미국에서 펜촉을 수입했지만 1905년경부터 지금과 같은 펜촉이 있는 만년필을 내놓기 시작했다. 1905년이면 독일의 몽블랑이 회사를 설립하고 만년필을 만들기 시작한 1908년보다 이르다. 또 1910년경 펜촉 끝의 원료인 이리도스민까지 홋카이도에서 발견되면서, 1910년대 중반이 되면 금 펜촉의 완전한 자국 생산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기술과 원료 수급 조건까지 갖춘 일본은 1920년대 금과 은을 뿌려 그림을 그리고 옻칠을 하는 마키에까지 성공하면서, 1930년대가 되면 미국에 이어 만년필 세계의 넘버 2가 된다. 혹시 2등을 영국이나 독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937년 일본 파이로트가 조사한 것을 보면 영국과 독일은 일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주요 회사들의 월 생산량을 보면 미국 파커 25만 자루, 영국 마비토드 6만2000자루였고, 독일은 대표 회사 몽블랑의 자료가 없어 아쉽지만, 펠리칸이 3만 자루인 것을 보면 몽블랑 역시 10만 자루는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파이로트는 20만 자루였다.

일본이 1등을 할 수 있던 첫 번째 기회는 일본의 경제 고도 성장기인 1960년대였다. 만년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만년필인 '파커51'이 출시된 지 20년이 넘자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었지만 대를 이을 만한 뚜렷한 후계자는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1963년 미국과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만년필 두 개가 격돌하듯 등장했다. '파커75'와 '파이로트 캡리쓰(capless)'였는데 승부는 싱겁게 끝났다. 뚜껑이 없고 뒤쪽의 버튼을 누르거나 돌리면 펜촉이 나오는 캡리쓰는 신기했지만, 금속으로 된 몸체와 콤팩트한 크기로 향후 20년간 보편적 표준이 된 파커75를 당할 수 없었다.

일본 도쿄에서 3월 13일 개막해 18일까지 열리는 '세계 만년필제(祭)' 포스터.

만년필의 르네상스 시기인 1980년대는 두 번째 기회였다. 세월에 장사가 없다고 파커75가 지배하고 있던 만년필의 표준은 바뀌기 시작했다. 파커75보다 마디 하나가 더 큰 만년필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잉크 넣는 방식 역시 미국보다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피스톤 방식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 표준이 바뀌는 시기에 이전 방식을 고집하였고 재빨리 적응한 몽블랑과 펠리칸이 만년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1등일까? 매년 컬러를 바꿔 엄청난 판매액을 올리는 사파리(Safari) 만년필의 라미가 독일이니 여전히 독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공기(空氣)는 몇 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시금 바뀔 때가 온 것이다. 독일의 집권이 이어질까, 아니면 미국이 탈환하는 시대가 될까? 미래를 점칠 순 없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 일본처럼 보편성을 무시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변화 앞에 머뭇거려서는 결코 1등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만년필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율리시스 카이사르 명언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 공화정 말기 정치가인 그가 루비콘강을 건너며 남긴 말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므로 좋든 싫든 결판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말도 남겼다. 소아시아에서 군사를 일으킨 폰토스 왕 파르나케스를 격파하고 원로원에 보낸 전투 결과 보고서이다. 단 세 단어로 전투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오늘 브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기원전 100년~기원전 44년.

☆ 고사성어 / 복수불수(覆水不收)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 한 번 저지른 일은 다시 어찌 할 수 없음을 이른다. 출전은 습유기(拾遺記). 태공망(太公望, 본명 강여상(姜呂尙) 속칭 강태공)은 제(齊)나라의 제후로 출세했지만, 가난한 서생 시절 아내 마(馬)씨는 친정으로 도망갔다. 훗날 아내가 돌아오자 여상이 마당에 물그릇을 엎지르고 물을 주어 담으라고 했으나 허사가 되자 한 말에서 나왔다. "그대는 이별했다가 다시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다"[君能離更合 覆水定難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사상식/사회적 비용(social cost)

재화를 생산할 때 생산자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즉, 재화 생산 시 발생하는 사적 비용과 외부 효과로 인한 비용을 합친 개념이다.

☆ 속담 / 쏘아놓은 화살이요 엎지른 물이다.

다시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일이 그릇됨을 뜻한다.

☆ 유머 / 애로사항

기자가 여자 누드만 그리는 여류화가에게 남자 모델을 안 쓰는 이유를 물었다.

"남자 모델은 스케치할 때와 그림을 그릴 때 몸이 달라져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거든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포퓰리즘' 환경부담금에 뿔난 시멘트업계

이재훈 중기IT부/yes@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와 시장 악화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시멘트업계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긴축재정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비롯한 각종 환경부담금 규제까지 겹치며 더 큰 악재와 마주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등은 올해 시멘트업계에 △지역자원시설세 △질소산화물배출부과금 등의 각종 규제와 세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멘트 업계는 정부와 국회의 각종 환경부담금으로 최소한 1400억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와 국회 등은 우선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심의한 뒤 4월께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과세가 확정되면 시멘트업계는 1년에 약 53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문제는 시멘트 업계가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중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이다. 이미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 기준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다. 현재 시멘트 업체는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 30억 원에 가까운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정치권과 정부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치 '포퓰리즘 규제'로 악용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지역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 지역주민에 돌려주자'는 취지로 만든 지역자원시설세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때다. 여기에 시멘트 업계는 환경부가 2020년부터 징수할 계획인 약 650억 원 상당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온실가스배출권 구매 연간 230억 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경영위기로 힘든 시멘트업계에 숨통은 터 줘야 한다. 무리한 과세 부담은 되레 관련 업계의 더 큰 저항을 부를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납득하기 어려운 환경부담금 규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관련 업계의 호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헌

논설실	(02)799-2669	편집부	(02)799-2621	뉴스랩부	(02)799-2664	사진팀	(02)799-2697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금융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48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중기IT부	(02)799-2646	자본시장부	(02)799-2647

2010년 10월 4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숲 프로젝트' 10년째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

"반려나무 한 그루, 미세먼지 해결의 시작"

"미세먼지를 비롯한 모든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잘못된 방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 성동구 트리플래닛 팩토리에서 만난 김형수(32) 트리플래닛 대표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2010년에 설립된 트리플래닛은 개인 또는 그룹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소셜 벤처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사회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는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다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김 대표는 10대 때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환경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었다. 나무부터 시작해 고래 보호 등 주제도 다양했다. 영상을 제작하며 자연스럽게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이란 꿈을 꾸기도 했다.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설립한 트리플래닛의 첫 시작은 모바일 게임 제작이었다. 2010년 출시된 '트리플래닛'은 게임 상의 물, 비료를 통해 나무를 기르는 게임이다. 게임을 후원하는 기업은 사람들의 참여도에 비례해 나무를 심는다. 3탄까지 제작된 게임을 통해 심긴 나무는 약 30만 그루다.

그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게임이 떠올랐다"며 "일반적으로 나무 심기 활동에는 수십 명의 봉사활동자만 참가하지만 게임을 통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게임을 통해 이름을 알린 트리플래닛은 지난 9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2012년에는 스타의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는 '스타숲'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스타숲 프로젝트에는 가수 EXO, 동방신기 등 다양한 스타들이 참가했다.

이후에는 사회적 문제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숲을 조성하는 '포레스트 인 피스(Forest In Peace)', 저개발 국가에 구아바 나무 등 과실수를 심어주는 '메이크 유어 팜(Make Your Farm)' 등을 진행했다.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숲이 단순히 공기를 정화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포레스트 인 피스를 기획하고 얼마 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유가족과 함께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했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 숲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자부했다.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는 "10대 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 중·고등학교 시절 나무심기·고래보호 등의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최근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려나무 입양하기 프로젝트에 대해 "사람들에게 나무의 역할과 의의를 알려주고, 모은 금액으로 실제 숲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0대 때부터 환경문제에 관심
나무·고래보호 등 콘텐츠 제작
2010년 숲 조성 소셜벤처 설립
나무 기르는 '트리플래닛' 게임
기업 후원으로 30만 그루 심어
공공기관·기업과 협업도 늘려
재작년 시작한 '반려나무 입양'
주문자에게 작은 나무 보내고
판매금 모아 숲 조성 나무 심어

최근에는 2017년부터 진행한 '반려나무 입양하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에서 아기 나무를 기르고 싶은 사람에게, 작은 나무를 보내주는 것이다. 활동을 통해 모인 금액은 숲이 필요한 장소에 나무가 심긴다. 기존 택배 상자로는 나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해, 김 대표는 나무를 담는 박스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서울로7017에서 사람들이 작은 나무를 보며 우리 집에서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한다.

트리플래닛이 항상 순탄한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이미 우리나라에 숲이 많다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다.

김 대표는 "최근에는 트리플래닛이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래서 트리플래닛은 서울시와 산림청과 같은 공공기관 외에도 한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도 5년 이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각해진 미세먼지를 보며 반성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트리플래닛이 설립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환경 오염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환경 보호를 외치는 소셜 벤처로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나무를 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 많은 숲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또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은 친한 지인이 승진하는 등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난을 보내 마음을 표현한다"면서 "난을 키우는 방법이 어려워 사람들이 쉽게 버린다. 우리는 이것을 나무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원, 학교 등에 반려나무를 기증하며 나무의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도 병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 1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나무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사설

건보재정 적자, 국민부담 줄일 대책 급하다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2018년 건보재정 수지가 1778억 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건보재정은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를 유지해 왔다. 2016년만 해도 흑자 규모가 3조856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7년 7077억 원으로 급속히 쪼그라든 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우려됐던 재정 악화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의료 수요와 보험급여 지출을 크게 늘린 때문이다. 보험급여는 2017년 55조5374억 원에서 작년 60조5896억 원으로 1년 사이 5조552억 원(9.1%)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병원 2, 3인실 입원비나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줬다.

문제는 앞으로 건보재정 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2022년까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에 건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 규모가 올해 2조2000억 원, 2023년 3조8000억 원, 2027년 7조5000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동안 흑자로 쌓인 적립금이 작년 말 기준 20조595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고갈은 시간문제다. 2022년까지 건보의 추가 지출 부담이 30조~35조 원에 이르러 적립금 규모가 절반으로 줄고, 2026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나 1조5000억 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걷거나 정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보험료율은 이미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직장가입자 기준 6.46%로 작년보다 0.22%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예고해 놓고 있다. 그래도 적립금의 빠른 소진을 막기 어렵다. 몇 년 안에 현행법상 건보료율 상한선인 8%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국민 개개인, 또 직장가입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떠맡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작년 정부 지원금은 7조802억 원으로 건보 수입의 11.4%를 차지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규모는 증가 추세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또 정부 예산으로 건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건보의 보장성을 계속 넓히는 것이 우선적인 복지임에는 틀림없다. 국민 부담의 증대 또한 불가피하다. 하지만 보험 곳간이 이처럼 급속히 허물어져서는 지속되기 어렵다.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복지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재원 확충 대책이 시급하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

한 컷

이런 하늘만!

13일 서울 경복궁과 청와대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 위에는 푸른 하늘이 자리 잡고 있다. 북서풍에 대기오염 물질이 쓸어 내려가 모처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범위에 드는 것이 올해 들어 처음이라니, 이제는 하루 종일 맑은 하늘 보며 마음껏 숨 쉬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SAMSUNG

산책하고 들어와
개운하게 목욕한 아이들에게

상쾌하고 뽀송뽀송한
옷을 입혀주세요

앞선 사람들은
이렇게,에어드레서를 씁니다

골드미러

삼성 에어드레서

| 옷을 넘어 라이프까지 바꾸는 **진정한 의류 청정은 오직 에어드레서 뿐** |

미세먼지 필터
미세먼지 필터로 옷에서 털어낸 미세먼지를 빠르고 강력하게 집진합니다.

냄새분해 필터
제품 내부에 남은 작은 냄새 입자까지 냄새분해 필터로 분해해서 없애줍니다.

제트스팀
각종 바이러스와 유해세균을 99.9% 살균하고, 생활주름까지 간편하게 관리합니다.

제트에어
강력한 제트에어가 안감 속 미세먼지까지 빠르게 털어냅니다.

• 99.9% 살균 : <바이러스> - 코로나 99.9% 제거, 아데노 바이러스 99.9% 제거, 페리페스 바이러스 99.9% 제거 - 시험 방법 : 살균 코스에서 시험소재에 오염시킨 바이러스에 대한 제거율을 의미함 - 시험 소재 : 2cm × 2cm의 면 소재, 오직 소재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전임상 시험실 실험결과임 <세균> 식품독, 장염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99.9% 제거, 대장균 99.9% 제거 - 시험 방법 : 살균 코스에서 시험 소재에 주입된 세균에 대한 살균율을 의미함 - 서초 1벌, 10cm × 10cm 면 소재 시험소재 3개를 의류의 안개에 위치를 부착하여 시험함 - 시험 대상균 :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 국제인증기관 Intertek 검증을 받은 자사 실험 결과임 • 실험실 수치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